

제 25회 檀國大學校 日本研究所 學術심포지엄

司會 : 남철희(한국관광대 교수)

13:30~13:50 接受 및 登錄

13:50~14:00 開會辭 (정 형 단국대 일본연구소장)

◆ 企劃主題: 〈 日本漢字文化 再照明 〉

第 1 部

14:00~14:35 日本漢字音의 漢音, 吳音이라는 명칭에 대하여

- 고수만 (인하대 교수)

指定討論 - 권경애 (한국외대 교수)

14:35~15:10 개화기 일본 신문명 어휘의 도입에 대하여

- 『한성순보』를 중심으로-

- 이한섭 (고려대 교수)

指定討論 - 편무진 (단국대 교수)

15:10~15:45 한일 양국의 한자정책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 이우석 (영산대 교수)

指定討論 - 황규삼(서일대 교수)

15:45~16:05 休息

第 2部

16:05~16:40 일본어에서 한자의 기능

- 황광길 (단국대 교수)

指定討論 - 이동욱 (한양여대 교수)

16:40~17:15 しんにゅうの点から見える問題

— 新常用漢字の制定に関連して—

- 東ヶ崎祐一 (경희대 교수)

指定討論 - 신석기 (건양대 교수)


17:15~18:00 종합토론

司會 - 황광길 (단국대 교수)

討論 - 고수만, 권경애, 이한섭, 편무진, 이우석

황규삼, 이동욱, 東ヶ崎祐一, 신석기

Reception



## 日本漢字音의 漢音, 吳音이라는 명칭에 대하여

- 교수만 (인하대 교수)

지정토론 - 권경애 (한국외대 교수)

## 日本漢字音의 漢音, 吳音이라는 명칭에 대하여

고 수 만 (인하대 교수)

### 1. 序 - 문제의 소재

현재 일본의 漢字音은 거의 대부분 漢音·吳音·唐音에서 유래한 것으로, 唐音이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사용되었던 것에 비해 漢音과 吳音은 漢字 전반에 걸쳐 그 音形을 가지고 있어 日本漢字音의 2대 축을 이루어 왔다. 그리하여 漢音·吳音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그 音形 등에 관해서 많은 연구가 행하여져 왔고 그간 많은 성과가 거두어졌다.

그렇지만 漢音·吳音이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漢音에 대해서는 그것이 唐代의 북방 長安音이 母胎가 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사실이다. 그리고 吳音에 대해서는 ‘吳’라는 명칭 때문에 吳 지역, 다시 말해 중국 남부 지방의 音이 母胎가 되었다고 하는 說이 일반에게 받아들여져 일본한 자음의 연구자들조차도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唐代의 북방(長安)음을 모태로 하는 음을 중국을 대표하는 용어인 ‘漢’을 써서 漢音이라고 부르면서, 왜 吳音은 吳라는 지역의 이름을 붙인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과연 뱃길 등의 교통이 원활하다고는 할 수 없는 당시에 중국의 남쪽 지역과 일본이 한자음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정도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吳’란 중국의 남부 즉 楊子江 下流의 남쪽 지역으로 江南, 또는 江東이라고도 부른다. 이 지역에는 春秋時代에 吳國(B.C.427年 滅亡)이 있었지만, 삼국지로 유명한 삼국시대에 孫權에 의해 세워진 吳로서 크게 알려진 곳이다. 손권의 吳 역시 280년에 멸망하는데, 당시의 일본의 실정으로 보아 吳와의 교류는 그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馬淵和夫(1985)는 隋 이전에 北中國과의 교류의 기록이 문헌상에 거의 없었던 당시의 일본이 南中國과 직접적인 교류를 했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일본에서는 吳의 訓을 「クレ」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藤堂明保(1969)는

ただ "日が暮れかかる西方の国" という意味で、別に "江南地方" でも "三国時代の呉" でもない。

라고 하였고, 馬淵(1985)는 クレ에 대해 高句麗를 나타내는 ‘句麗’에서 온 것으로 나중에 ‘吳’字가 붙여진 것이라고 하며, クレ를 句麗의 字音으로 보았다. 두 학자 모두 일본에서의 ‘吳’의 의미가 중국의 남쪽 지역과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렇다면 일본에서의 漢吳라는 대립적인 개념은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 唐代的 漢·吳의 개념

중국에 관한 것을 말할 때 ‘漢’이라는 字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漢字, 漢文, 漢族……이것은 외국인인 한국인이나 일본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스스로도 이런 어휘들을 사용한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중국을 대표하는 자로 ‘漢’을 사용한 것일까?

唐太宗 때에 편찬된 周書(異域傳) 百濟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王姓夫餘氏 號於羅珈 民呼爲韃吉支 夏言并王也

또한 같은 唐時代의 黃淬伯의 慧琳音義에

六朝舊音多存於江左 故唐人謂之吳音 而以關中之音爲秦音

라는 기록이 있어, 당시의 중국인 스스로가 자신의 나라를 가리킬 때, ‘夏’ 또는 ‘秦’ 등의 語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漢’이란 용어는 원래 漢나라 이후 외국, 특히 西域의 異民族이 중국을 가리킬 때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인데, 唐 시대의 각종 문헌에 漢語, 漢土…등의 용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唐 시대부터 점차 중국인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서도 일찍부터 중국에 관한 것을 ‘漢’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三國史記』나 『三國遺事』 등을 보면 중국에 대해 ‘漢’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다음과 같이 일찍부터 ‘漢語’라는 용어가 사용된 기록이 있어 중국에 대해 ‘漢’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各取弟子二人 令習漢語 (續紀(730年))

이에 대해 馬淵(1985)는 중국을 ‘漢’이라고 부르는 한반도의 풍습이 그대로 일본에 전해 정착된 것으로 보는데,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이에 반해 ‘吳’는 삼국시대 孫權에 의해 세워진 吳가 멸망한 이후에도 長江의 남쪽 즉 江東 지역을 가리키던 용어로 사용되어 왔었지만, 唐代 에는 그러한 지역적인 概念 외에도 넓고 오래된 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의 용어로, 시대에 뒤떨어진 이라는 일종의 경멸감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 거기에는 藤堂(1969)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 北人이 南朝를 병합해 중국통일을 이룩했다는 정치적인 우월감도 한 몫을 한 것 같다.

이러한 吳에 대한 개념은 한자음의 명칭에도 반영되어, 당시 중국을 지배하던 北人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長安의 標準音을 正音이라 칭하고, 黃溱伯이 慧琳音義에 쓴 것처럼 아직 吳 지역에서 讀書音으로 사용되고 있던 한 시대 전인 六朝 시대의 音(切韻音)을 吳音이라 부르며 경멸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다.

南北으로 갈라졌던 중국을 통일한 隋는 한자음에 있어서도 통일을 꾀해 『切韻』(601年)을 편찬하는데, 거기에 실린 音은 河野六郎(1979)가 지적한 대로 中原音이 중심이었을 것이다. 隋에 이어 唐 시대가 되며 정치·문화 등의 중심지가 북방으로 옮겨가며 그곳의 方音과 결합한 唐代의 長安音은 切韻音과는 거리를 두게 된다. 반면 吳 지역에서는 아직 切韻音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唐代의 識者層의 입장에서 이를 경멸의 의미를 담은 吳音으로 불렀던 것 같다. 참고로 宋代가 되면서 字音의 전통은 다시 中原으로 되돌아온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吳音’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唐代부터이지만 ‘漢音’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시대가 한참 내려간 明代에 출간된 『字彙』(1615年)이다. 그것은 예전부터 중국에서는 표준음을 의미하는 용어로 ‘正音’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漢音’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 3. 日本에서의 漢音·吳音의 구분에 대해

百濟로부터 五經博士가 파견된 것이 513年, 불교가 전래된 것이 538年이므로 이 시기를 전후해 대륙의 문물이 대량으로 전래되면서 한자 역시 일본에 정착되었을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는 중국에 있어 南北朝에 해당하는 시기로, 한자를 읽는 법 즉 한자음 역시 남북조 시대의 한자음이 기반이 되었을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중국 대륙이 隋에 의해 통일 되고 이어 唐 시대로 바뀌면서 일본과 대륙 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활발해 진다. 일본에서 건너간 留學僧과 遣唐使 등은 발달된 唐의 문물을 접하면서 당시 수도인 長安 지역에서 사용되는 한자음이 그들이 일본에서 사용하던 한자음과 크게 다른 점에 당혹해 하면서도 새롭게 이를 익혀 일본 朝廷에 보고하고, 당시의 朝廷은 이를 正音이라 하여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이후 일본에서는 留學僧과 遣唐使 등이 새롭게 익혀온 正音을 漢音이라 칭하고, 그 때까지 사용되던 한자음을 吳音이라 칭하여 구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漢音·吳音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奈良朝와 平安朝의 교체 시기, 즉 8세기 말로 여겨진다. 奈良朝 末期에 편찬된 古事記와 日本書紀에 사용된 音假名을 보면 古事記에서는吳音系의 萬葉假名가, 日本書紀에서는 漢音系의 万葉假名가 주로 사

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上代시대에 이미 唐으로부터 새로운 한자음이 도입되어 원래부터 사용되던 한자음과 같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漢音·吳音이라는 호칭과 함께 둘을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奈良朝와 平安朝의 교체시기부터로 보여진다.

奈良朝 末期의 문헌에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보인다.

明經之徒 不可習吳音 發聲誦讀既致訛謬 熟習漢音

明經の徒は、吳音に習うべからず。發聲誦讀すでに訛謬を致せり。漢音を熟習せよ。

延曆11年(792)の勅<日本略記卷九上>

自今以後 年分度者 非習漢音 勿令得度

今より以後、年分の度者は、漢音を習うに非ずんば、得度せしむることなかれ。

延曆12年(793)の勅<類聚国史・仏道部>

이러한 기록들은 당시의 일본 朝廷이 遣唐使와 留學僧들에 의해 새롭게 받아들여 온 漢音を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은 당시 그 이전부터 일본에서 사용되어 왔던 吳音이 일본 사회에서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漢音·吳音의 구별은 일본한자음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安然是 悉曇藏(880年)에서, 智正과 指聽이라는 두 명의 法師가 長安에서 귀국한 것에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은 평을 더 했다.

此兩法師共說吳音漢音 吳音似和音 漢音如正音 漢土不能呼吳 吳土不能呼漢

安然이 말하는 漢音·吳音은 일본의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의 漢音·吳音を 말하는 것으로 그것이 각각 일본의 正音과 和音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 ‘漢音’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이 1615년이므로 당시 安然 등이 언급한 ‘漢音’은 中國(唐)의 標準音이라는 의미에서 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吳音’은 당시의 中國式대로 한 시대 전인 南北朝 시대의音を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그러한 中國語音에 대한 漢音·吳音이라는 대립적인 개념이 일본한자음에 적용되어 일본에서의 漢音·吳音이 정착된 것으로 보여진다.

#### 4. 맺는 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한자음의 漢音·吳音이라는 명칭은 지역적인 대립의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漢音은 중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나타내는 ‘漢’이라는 字를 쓰면서, 吳音은 吳라는 중

국의 일개 지방의 音이라는 것은 모순된 느낌을 준다. 더군다나 당시 일본의 사정에 비추어 중국의 남부 즉 吳 지역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吳音=중국 江東지역의 音이라는 등식은 성립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일본한자음의 漢音·吳音이라는 명칭은 그 모태가 된 音이 唐 시대의 標準音 對한 시대 전의 六朝音이라는 시간적인 대립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遣唐使나 留學僧 등이 당시의 중국에서 吳音을 경멸하고 長安의 音을 표준음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일본에 귀국하여 그에 따랐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 參考文獻

- 河野六郎(1979) 「朝鮮漢字音の研究」 『著作集 2』 平凡社  
高松政雄(1982) 『日本漢字音の研究』 風間書房  
(1986) 『日本漢字音概論』 風間書房  
藤堂明保(1969) 『漢語と日本語』 秀英出版  
馬淵和夫(1985) 「唐(から) 漢(あや) 吳(くれ)」 『中央大学文学部紀要55』

권 경 애(한국외대)

日本漢字音의 漢音 · 吳音이라는 명칭에 대하여

본 발표는 일본한자음의 명칭 중에서 漢音과 吳音이라는 명칭을 지역적인 대립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의 標準音(唐나라 長安音) 대 前 時代音(六朝音)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아래 질문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들음으로서 발표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질문1.

‘吳’ 라는 명칭에 대해서 唐代에는 지역적인 概念 외에도 남고 오래된 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의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일종의 경멸감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고 하였는데 경멸감을 나타내었다고 보는 근거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들 수가 있는가?

질문2.

중국에서 ‘漢音’ 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明代에 출간된 『字彙』 (1615年)에서부터 보고 그 이유를 ‘正音’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 보았는데, 그렇다면 ‘漢音’ 이라는 용어가 나중에 생긴 용어라고 보는 것인가? 安然이 悉曇藏(880年)에서 기술한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중국 장안에서 한음이라는 용어와 정음이라는 용어가 공존해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질문3.

일본한자음에서 吳音이 漢音에 비해 음가 면에서 중층적인 성격을 띤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漢音의 대립되는 일본한자음으로 吳音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었고 吳音의 또 다른 이름으로 和音이라는 것이 있는데 和音은 吳音과 완전히 일치하는 용어였다, 아니면 어떤 차이가 존재했었다고 보는가?



---

## 개화기 일본 신문명 어휘의 도입에 대하여

- 『漢城旬報』를 중심으로 -

- 이한섭 (고려대 교수)

지정토론 - 편무진 (단국대 교수)

## 개화기 일본 신문명 어휘의 도입에 대하여

— 『漢城旬報』를 중심으로 —

이 한 섭 (고려대 일어일문학과 교수)

키워드: 한성순보, 신문, 신문명 어휘, 뉴스源, 일본어 어휘

### 1. 들어가며

본고는 한국 최초의 근대적 신문 漢城旬報에 도입, 사용된 근대 일본어 어휘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한성순보는 ‘국민들에게 세계정세를 알리는 한편 선진 국가의 정치·경제 및 문화 제도를 소개하고 과학 지식을 보급시키어 결국은 이 나라를 문명개화의 단계로 이끌어 보기 위해’ 발간한 신문이나<sup>1)</sup>, 기사 내용면에서 뉴스源을 상당 부분 중국 일본 자료(신문 및 서적)에 의지함으로써 중국어와 일본어 어휘를 다수 수록하게 된 특이한 자료이다. 19세기말 한문으로 발행된 한국 신문에 중국어와 일본어 어휘가 다수 수록되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로서, 필자는 일찍부터 한성순보가 우리나라 신문명 어휘 성립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한성순보가 언론사와 신문사, 개화사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가 되었을 뿐 언어 자료로서는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성순보를 한국 근대 어휘 성립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보고 기사 전문에 사용된 어휘를 조사 분석하여 외래적인 어휘, 특히 일본어 어휘의 사용 문제에 대하여 밝혀보고자 한다.

외래 어휘의 도입에는 반드시 그 도입을 가능하게 한 매개체가 있게 마련이며 그 매개체로는 사람이나 서적, 물품(상품등), 마스크(신문·잡지)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매개체 중 특히 신문에 주목하여 19세기말 동아시아에서 ‘신문’이란 미디어가 역내에서 새로운 지식과 어휘를 전파하는데 어떻게 관여되어 있는지를 생각해보려고 한다.

### 2. 한성순보의 발행

본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기서는 먼저 한성순보의 발행 사정과 내용, 뉴스源, 일

1) 이광린 「漢城旬報와 漢城周報에 대한 一」 『韓國開化史研究』, 一潮閣, 1974, p60

본과 중국 신문의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한성순보에 대해서는 이미 정대철(1984,1986), 정진석(1983, 1984, 2003), 채백(1989), 최준(1969,1983) 등의 연구로 그 실상이 상당 부분 알려졌고(본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 참조) 본고의 작성에 앞서 필자도 기사 내용 및 뉴스源 등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다.

## 2.1 발행 사정

한성순보는 1883년 10월 31일부터 1884년 12월까지 약1년 2개월간 서울에서 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36호까지이다. 10일에 한번 발행한다고 하여 ‘旬報’라 불렸으며 발행 부수는 최대 1000부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의 크기는 25cm×9cm였고 페이지 수는 18페이지 전후로서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신문이라기보다는 얇은 잡지와 비슷하였다. 신문의 독자는 중앙관서와 지방 관청의 관원들이 주였고 더러는 당시 서울에 와있던 중국과 일본인 독자도 있었다<sup>2)</sup>. 신문이 발행되게 된 데에는 임오군란의 수습을 위하여 도일했던 박영효가 귀국 후 국왕에게 발행의 필요성을 건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하나 실제 발행에 이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곡절이 있었다. 신문 발행진은 한문 및 중국어 일본어를 해득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그 수는 5-6인 정도로 알려졌다. 발행진 중 특이한 사람은 일본인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인데 그는 박영효가 신문 발행을 위하여 일본에서 데리고 온 일곱명의 일본인 중 하나로, 신문 발행시 외국 신문의 번역원 신분으로 조선정부에 고용되어 한성순보의 발행에 깊이 참여하였다<sup>3)</sup>. 한성순보의 초기 발행진을 들면 다음과 같다.

총책임자 : 金晩植。

主事(편집책임자) : 金寅植 (뒤에高永哲(中國留學出身者, 초보적 영어 가능), 呂圭亨으로 바뀜 )

司事 (편집실무담당) : 張博(역관)、吳容默(역관)、金基俊(역관)

翻譯人 :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

印刷工 : 三輪廣藏、眞田謙藏

한성순보는 한문으로 발행된 만큼 발행진은 전원 한문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으며 중국과 일본 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중국어 역관 출신자와 일본어 사용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발행진 중 중국어 역관 출신자는 고영철과 오용묵, 김기준 등이었고 일본어 자료 담당자로는 이노우에 가쿠고로가 있었다. 신문의 인쇄는 三輪廣藏、眞田謙藏 등 일본인이 담당하였는데 이는 당시 신식 인쇄기를 다룰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 2.2 한성순보의 문장 및 기사 내용

2) 漢城旬報의 발행사정에 대해서는 鄭晉錫(1983b)와 鄭大撤(1986)등을 참조할 것

3) 이노우에 가쿠고로가 한성순보의 발행에 관여한 사정에 대해서는 채백(1989)의 연구 등을 참조할 것

한성순보의 기사는 전부 한문으로 작성되어 있다. 신문의 구성은 크게 국내뉴스(「内國紀事」)와 「외국 뉴스(「各國近事」)로 나눌 수 있고 날에 따라서는 「論說」(외국신문의 논설을 전재하거나 번역 게재함)과 「集錄」(오늘날의 feature 기사에 가까움)이 있고 광고도 일부 실려 있다. 국내뉴스는 다시 「国内官報」와 「国内私報」로 나뉘어 진다.

약 14개월 동안 발행된 한성순보의 기사 건수를 조사하면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各國近事」가 1019건으로 (기사 전체의 65.4%) 가장 많고 다음에는 国内官報 336건 (21.6%), 集錄 127건(8.2%), 国内私報 71건(4.6%)의 순이다<sup>4)</sup>.

<표1> 기사의 내부 구성

漢城旬報	國內官報	國內私報	各國近事	集錄	本局廣告	計
	336(21.6)	71(4.6)	1,019(65.4)	127(8.2)	4(0.26)	1,557件

이를 보면 한성순보는 국내 기사보다는 당시 급변하던 외부세계, 특히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의 뉴스를 주로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 2.3. 한성순보의 뉴스源

한성순보의 국내기사는 조정 내부의 소식(인사 발령 등)과 칙령 등이 수록된 「朝報」가 기사의 주요 출처이며 취재 기사로서 물가 시세 등이 있다. 국외 기사는 거의가 중국 일본 홍콩 등 외국 신문을 뉴스源으로 하고 있는데 외국신문은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거나 한문으로 번역하여 실고 있다. 뉴스 출처에 대해서는 「申報云」 「滬報云」 「日本時事新報云」 「右見滬報」 「香滬報云」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近聞津信滬」과 같이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아예 뉴스源을 표시하지 않은 기사도 적지 않다. 어느 나라 신문을 주로 뉴스源으로 삼았는가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다<sup>5)</sup>.

<표2> 외국신문의 뉴스源

한성순보	중국 신문	일본 신문	기타	뉴스源 불명
	611	156	93	169

<표2>를 보면 한성순보는 외국 소식란 기사 작성에 중국 신문을 주 뉴스源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 신문이 그 뒤를 잇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잠시 한성순보에 수록된 기사를 실제로 보기로 한다. 아래 드는 기사는 한성순보 제19호(1884년 4월25일 발행)의 기사인데, 기사 종류 및 수는 「内國紀事」가 11건, 各國近事 52건, 集錄 6건 등 총69건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이들 기사 중 뉴스源이 명시된 기사는 47건(전체 기사수의 68.1%)으로 다른 호수에 비하여 많게 나타나 있다.

<표3> 한성순보 제19호의 기사 내용 및 뉴스源

기사 종류		기사 제목	뉴스源
内 国	國內官	應製設科	

4) 鄭晉錫(2003)에 의함

5) 鄭晉錫(1983) 「漢城旬報와 周報 뉴스源」 『新聞學報』 16, 韓國新聞學會, pp.11-21

紀事	報	諭旨恭錄 京畿道觀察使狀啓 議政府啓 諭旨恭錄 諭旨恭錄 諭旨恭錄 京畿道觀察使狀啓 市直探報	
	國內私報	錄上海申報一則 我國船名	上海申報 中國新聞
各國近事		三戰三捷 越事要電 法艦行程 法艦傳聞 法艦行程 法船來滬 津沽要電 葡法傳信 索費傳疑 借箸可笑 幾生嫌隙 東京來信 侯相傳聞 奧國近聞 練勇勤操 駐節海？ 析津郵音 兵輪赴防 法船又來 裝砲被阻 委閱砲臺 漁團擬撤 鎮海防務 檄調軍門 營口近事 分設電局 定造巨砲 招募砲勇 北京電信 中西傳信 德國近聞 德國軍備 西洋拓地 美國兵船 英美製鐵額 緬甸大敗 波斯擾亂 俄國軍艦 俄國郵便 俄國亞陸政略	申報 申報(3月23日) 本埠 西商接到電報 申報 汕頭來信 申報(3月29日) 申報(4月3日) 申報(4月5日) 申報(4月6日) 申報(4月7日) ? 龍來信 申報(4月5日) 申報(4月3日) 申報 申報 申報(4月4日) 津門來信 營口來信 申報(4月4日) 英國新聞 官場傳聞  申報(4月6日) 申報(4月7日)  美國新聞紙  申報 倫敦來信 外國新聞紙 日本報知新聞 福州 西子報 東報 美國製鐵協會報告 孟買(Bombay)新聞 日本近信  英京 時事新報 日本報 英國海陸軍務新聞 俄京新聞

	俄國東洋政略 俄國增加地租 日本近聞 日本地租條例 各國國債說略 救生船略 議立中外求生船總會總會 章程 顯微鏡 影燈 二氣燈之光 廈門設立博聞書院 論牛痘來歷	日本報 大藏省布示(3月15日) 美國博士寶節德 國財論  萬國公報 中西聞見錄  萬國公報 萬國公報
集錄	德國誌略續稿 科倫布檢出新地 科倫布再航新地 西班牙人馬爾慕亞慕亞檢 出太平洋 各國江河表(上)	米利堅誌(America report)

한성순보 제19호의 뉴스源은 申報와 上海申報, 萬國公報, 中西聞見錄 등 중국 신문이 가장 많고, 일본신문은 郵便報知新聞과 日本報, 日本近信, 大藏省布示 등 4종, 그밖의 뉴스源으로는 津門來信, 英京 時事新報, 福州 西子報, 米利堅誌(America report), 美國新聞紙, 俄京新聞, 孟買(Bombay)新聞 등 다양한 뉴스 출처가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성순보의 기사를 조사해보면 특정 신문을 뉴스源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국과 일본 신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4>와 같다. <표4>는 중국과 일본 신문에 한해서 어느 신문의 기사가 몇 차례나 기사 작성에 사용되었는지 조사한 것이다.

<표4> 기사 작성에 사용된 신문별 기사수

중국 신문	申報260回 滬報123回 中外新報 69回 循環報 56回 上海報21回
일본 신문	官報32' 時事新報15回' 鹿兒島新聞8回' 東京日日6回' 報知新聞6回

한성순보의 기사 작성에 사용된 중국 신문은 상해에서 발행된 신문이 많고 그중에서 申報의 기사가 260회나 사용되어 빈도가 가장 많았다. 일본 신문에서는 官報가 32회로 가장 많고 時事新報와 鹿兒島新聞 등이 그 다음 순서이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발행한 時事新報 기사의 사용 건수가 많은 것은 한성순보의 발행이 후쿠자와 유키치와 깊은 관련이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6)</sup>.

## 2.4 중국 및 일본 신문 기사의 사용 방법

### 2.4.1 중국 신문

본고에서는 자료 입수 문제와 시간상의 제약으로 중국 신문 중 「申報」만 조사하였는데

6) 漢城旬報의 발행과 후쿠자와 유키치와의 관련에 대해서는 稻葉繼雄 (1987)와 李光麟(1968), 鄭晉錫(2003) 등을 참조할 것

조사 결과 「申報」 기사는 한성순보기사 작성에 사용될 때 원 기사를 번역하거나 가공한 것이 아니고 해당 기사 전문을 그대로 전재하였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한성순보의 기사가 한문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종래의 생각에 반하는 것으로, 다른 중국(『滬報』 『中外新報』 循環報』 『上海報』 등) 신문의 기사 사용도 「申報」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 2.4.2 일본 신문

일본 신문의 경우는 중국 신문과 달리 한문으로 번역하여 게재하고 있다. 이는 한문 신문에 일본어 기사를 그대로 전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단 일본 신문의 번역은 일본어 문장을 전문을 꼼꼼하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추려서 게재하거나 일부만을 번역한 것이 확인되었다.

### 3. 『漢城旬報』에 사용된 일본어 어휘

#### 3.1 일본어 어휘의 추출

약 1년 2개월분의 한성순보 기사에서 일본어 어휘를 추출하는 작업은 지난한 일이다. 일본어 어휘 추출이 어려운 이유를 들자면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우선 말할 수 있는 것은 한중일 삼국이 같은 한자문화권의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19세기말 이전 중국은 한자문화권의 중심으로서 각종 지식과 정보를 발신하는 역할을 하였고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제도와 사상, 문화 등을 받아들인 것이 많아 어휘면에서 공통적인 어휘를 적지 않게 공유하고 있다. 다음에 들 수 있는 이유로는 한성순보가 발행된 시기는 근대 일본어 어휘가 한국과 중국어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전의 일이고 오히려 중국에서 활동 중인 서양 선교사들의 번역서와 저작물이 일본에 유입되어 참고가 되던 시기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한국측 입장에서 볼 때는 해당 단어가 중국에서 들어 온 것인지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온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또 하나의 난점은 한국의 근대 어휘 연구가 일천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근대어 연구에서는 일부 자료의 어휘나 개별 단어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연구되었을 뿐<sup>7)</sup> 개별 단어의 성립에 관한 연구는 그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일본 한자어의 추출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우선은 한중일 세 나라 학자들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일본어 어휘로 판단한 단어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들 자료에 나오는 어휘가 한성순보에 나오는지 조사하는 일이다. 필자는 1980년경부터 한중일 학자들의 근대 어휘 연구 성과를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데(『한자문화권 근대 어휘 연구 성과 데이터베이스』) 지금까지 약 7,000단어 이상의 연구 성과가 수합되어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각 단어의 의미와 형태는 물론 각국에서의 성립 문제와 한자문화권내의 교류 등등이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본어 어휘로 분류된 어휘가 한성순보에 출현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7) 예를들면 이화여대한국문화연구원편(2004) 『근대개봉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소명출판), 송민교수의 宋敏(2000) 「『大統領』의 出現」 등

한성순보에 사용된 근대 일본어 어휘를 파악하였다. 또 한 가지 작업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각종 한국 고전의 전자자료류와 홍윤표외편 『17세기국어사전』(한국정신문화원,1995)과 정양원외편 『조선후기한자어휘검색사전-物名考·廣才物譜 -』(한국정신문화원, 1997), 『漢韓大辭典』(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8), 『한불자전』(1880) 등 사전 자료를 조사하여 한성순보 이전에 한국에서 사용된 일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 3.2 일본 어휘의 분포

한성순보는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기사 구성이 크게 「國內官報」 「國內私報」 「各國近事」 「論說·集錄」 등 네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일본어 어휘가 사용된 부분은 「各國近事」와 「論說·集錄」 등 두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各國近事」는 외국 신문 기사를 전재하거나 번역하여 실었으므로 내용이 짝막하다. 그러나 「論說·集錄」 부분은 외국 신문의 논설이나 계몽서, 자연과학 관련 서적 등을 부분 번역하여 실었으므로(경우에 따라서는 연재하기도 함) 그 기사 분량이 길고 그 결과 「各國近事」와 「論說·集錄」을 합치면 하루치 기사의 70-80%를 차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금번 조사에서 필자는 「各國近事」와 「論說·集錄」의 기사 전체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일본어 어휘일 것으로 잠정 추정된 단어를 1,116개 추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5>와 같다.

<표5> 기사의 뉴스源과 사용된 일본어 어휘수

	일본어 어휘 포함 기사수	일본어 어휘가 포함되지 않은 기사수	추출된 일본어 어휘수
일본 신문	52	46	172
중국 신문	15	596	34
구미 신문	29	31	102
기타	5	84	6
뉴스源 불명	101	189	802
합계	202	1,015	1,116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성순보에는 뉴스源이 명시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중국 신문에는 상해와 북경, 홍콩 세 지역에서 발간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고, 구미 신문으로는 프랑스와 독일, 미국, 러시아 신문이 포함되어 있다. 또 그밖의 신문으로는 베트남과 인도 신문 기사가 더러 제시되어 있고 「外國報」 「西字報」와 같이 뉴스源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적지 않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뉴스源이 구미 신문이나 기타 다른나라 신문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그들 신문을 직접 보고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신문사는 특파원을 외국에 직접 파견하거나 외국 신문사와 기사 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기사를 교류하기도 하고 통신사로부터 뉴스를 제공받기도 한다. 그러나 한성순보 시대에는 특파원도 기사 교류도, 통신사 활용도 없던 시대이고 오로지 중국과 일본 신문에 의지하여 외신란을 작성하던 시대이다. 또 중국어와 일어 영어(고영철과 일본인 이노우에가쿠고로만 약간 가능) 이외에는 다른 언어를 해득할 수 없어 설사 외국인



문이 들어왔다 해도 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정은 명확하다. 歐美신문과 기타 지역 신문을 뉴스源으로 표시한 기사는 원래 중국과 일본 신문이 기사를 작성할 때 명시한 것으로, 한성순보가 이들 신문 기사를 번역할 때 원래의 뉴스源까지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3 각 뉴스源별 일본어 어휘의 고찰

#### 3.3.1 일본 신문을 뉴스源으로 하는 기사에 사용된 일본어 어휘

일본 신문 기사를 뉴스源으로 하는 기사는 해당 기사 앞머리 또는 말미에 “前拋日本報云…” “東報云…”, “…右見日本報知新聞” “…右見日本新報” 등의 형태로 뉴스 출처가 제시되어 있다. 개중에는 「日本新聞」이라든지 「日本時事新聞」 「日本新報」 「東洋報」 「日本報」 등과 같이 애매하게 표시된 것도 있다. 실제로 명칭의 신문 이름이 정확히 표시된 것은 時事新報 (1882-1936) 와 東京日日新聞 (1872-1942), 官報 (1883-), 郵便報知新聞 (1872-1894) 정도이다. 그밖에 「日本造幣局報告」 나 「日本議會報告」 「日本統計雜誌」 「統計新報」 「日本協會報告」 등도 보이나 실제로 어떤 자료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자료에도 일본어 어휘가 사용되고 있으며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한성순보에 뉴스源이 명시된 기사에 나오는 일본어 어휘는 모두 314단어인데, 이중에서 일본 신문에 나오는 단어는 172단어로서 전체의 54.6%가 되는 셈이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다음은 한성순보의 여섯 개 호를 예로 들어 어떤 기사에 어떤 일본어가 기재되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아래 예를 보면 제9호에는 東京日日新聞에 난 기사를 「日本海軍」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 기사에는 財政, 海軍, 海峽, 將校, 容積, 士官, 鉄甲艦 등 7개 일본어가 사용되어 있다. 제16호를 보면 郵便報知新聞에 난 기사를 「法国艦隊」로 기사화하였는데, 이 기사에는 艦隊, 邏航艦, 探候艦, 運送船 등 4개의 일본어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호수	기사명	뉴스源	추출된 일본어 어휘
제9호	日本海軍	東京日日新聞	財政, 海軍, 海峽, 將校, 容積, 士官, 鉄甲艦
제15호	1882年電氣史	日本近信	電学, 海底電線, 会社, 機関車輛, 鐵路, 陽極, 陰極, 蒸氣
第16호	法国艦隊	報知新聞	艦隊, 邏航艦, 探候艦, 運送船
제17호	俄廷頒補 各会金額	時事新聞	会社, 監査員, 經濟学会, 美術, 農学会, 新聞社, 医学会, 音樂学校, 雜誌, 周旋員
제30호	英国財政	日本報	国産稅, 精算表, 所得稅, 委員, 印紙稅, 予算表
제35호	日本地租例	日本報	地方稅, 地券所, 地価, 肥料, 官有地, 私有地

이와 관련해서는 짐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몇 가지 있다. 그 중 하나는 누가 한성순보 기사에 일본어 어휘를 도입하였는가 이다. 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성순보의 번역원으로 고빙된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의 역할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노우에 가쿠고로에 대해서는 이노우에 자신이 저술한 『漢城廼殘夢』 (東京春陽書樓, 1891)과 『福沢先生の御朝

『鮮經營と現代朝鮮の文化とに就いて』(非売品, 1934), 稲葉繼雄(1987), 채백(1989) 등의 연구로 어느 정도 한국에서의 행적이 알려졌다. 지금까지의 연구로 미루어 보면 이노우에는 한성순보 발행 초기 외국신문의 번역은 물론, 인쇄기계 및 용지 구입과 인쇄 실무를 담당하는 등 신문 발행에 깊숙이 관여했던 것 같다. 특히 그는 서구 과학문명을 다룬 일본과 중국의 서적을 입수, 번역하여 『集録』에 수록하였는데 예를 들면 한성순보 제1호의 「地球圖解」와 「地球論」, 「論洲洋」은 그가 번역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노우에는 한국에 오기 전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 큰아들의 한문 가정교사를 할 정도로 한문에 능통해 있었고 영어도 어느 정도 해득하고 있었다. 그는 일본어와 한문, 영어 등의 어학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 신문의 기사를 취사 선택하여 번역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노우에 말고도 일본어 어휘 도입에 관여한 한국인이 더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노우에 가쿠고로가 한성순보의 발행에 직접 관여한 기간은 5-6개월 정도로 길지 않으며, 이노우에가 없을 때 발행한 한성순보에도 일본어 어휘가 사용된 것을 보면 이런 추측이 가능해진다. 이노우에가 없는 동안 발행된 한성순보에 일본어 어휘가 사용되었다면 누구인가 일어를 아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가 일어 신문 등을 읽고 기사를 한문으로 번역 또는 작성하였을 것이다. 이노우에 가쿠고로 말고 누가 일본어 어휘를 도입하였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하나의 추측으로는 어쩌면 張博(1849-1921)이 그 역할을 담당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그가 후일 일본통으로 활약한 전력 때문이다. 그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산하 동문학(同文学)의 사사(司事) 출신으로, 한성순보 기자로 발탁되었고 한성주보 발간 때에는 주필로 활약한 사람이다. 갑오개혁 때는 법무아문(法務衙門)의 참의(參議)와 협판(協辦) 지냈으며 김홍집 내각 때는 법무대신이 되었고 고종의 아관파천후 역적으로 몰려 10여년간 일본에서 망명한 사람이다. 그가 한성순보 발행 당시 일어를 어느 정도 해득하고 있었다면 일본어 신문 등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아직 속단할 수 없으며 실상은 후일의 연구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 3.3.2 중국 신문을 뉴스源으로 하는 기사

한성순보의 기사는 모두 한문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중국의 신문을 뉴스源으로 할 때는 기사 전체를 그대로 옮겨 실거나 초록 형태로 게재하여도 문제가 없다. 필자가 상해에서 발행된 申報 기사를 조사한 것에 의하면 申報를 뉴스源으로 사용하는 한성순보의 기사는 전부 申報 기사를 원문 그대로 옮겨 실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즉 기사 서두에 “申報云…” 이라하고 해당 申報 기사 전문을 게재하거나(제19호 「侯相傳聞」, 「練勇勤操」) “…右俱見申報” 라고 하여 申報 기사를 옮겨 실은 다음 뉴스源을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표2〉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신문을 뉴스源으로 하는 한성순보 기사는 611건인데, 이를 다시 신문 발행 지역으로 나누어 보면 상해에서 발행된 신문이 435건이고 이는 중국 신문 전체의 71.2%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또한 홍콩에서 발행된 신문 기사는 163건(27.3%)이고 북경에서 발행된 신문 기사는 9건(1.5%)밖에 되지 않아 사용 건수가 가장 적다. 이들 결과

를 보면 한성순보에서 사용한 중국 신문 기사는 대부분이 申報나 滬報 등 상해에서 발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중국 신문을 뉴스源으로 하는 신문에 나오는 일본어 어휘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 신문을 뉴스源으로 하는 신문 기사는 그 대부분이 중국 신문 기사를 전재한 것이라서 일본어 어휘가 존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실제로 본고에서는 중국 신문 기사 611건을 조사한 결과 15건의 기사에 일본어 어휘일 가능성이 있는 단어가 수록되어 있을 뿐이었다. 중국 신문을 뉴스源으로 하는 기사 중 일본어 어휘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는 <표6>에 들은 단어들이다. 이들 단어 중 「爆藥」이나 「虛無黨」(第2号) 등은 일본어 어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어인데, 「上海新報」라는 신문 자체가 불분명한 신문이고 같은 날 기사에 「逝世, 戴冕礼, 礼拜日, 毒手, 火器」 등과 같은 중국 특유의 어휘가 혼재되어 있어 이들이 왜 중국 신문에 사용되었는지 확실치 않다. 中外新聞(報)(제23호)과 申報(제25호), 益聞錄(제28호)의 기사는 원래 일본을 다루는 기사였으므로 「裁判官」 「外務省」 「質店」 등 원래 일본 출판물에 나오는 일본어 어휘가 소개되었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으나 「外交官」이나 「電報局」(제29호) 등은 같은 시기 중국에서도 사용된 예가 있으므로 금후 조사가 더 필요하다. 또한 滬報(제5호) 기사에 나오는 「三國同盟」도 선행 연구에 따라 일본어 어휘로 판단하였으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6> 중국 신문에 나오는 일본어 어휘

호수	기사명	뉴스源	일본어 어휘일 가능성이 있는 단어
第1号	安南与法人議和/安南事起源	上海新報?	政府, 通商口岸, 議院, 自主之權
第2号	俄羅斯新皇行戴冕礼	上海新報?	爆藥, 被刑者, 皇族, 兇器, 虛無黨
第5号	奧普意三国同盟	滬報	三国同盟
第5号	日本瑣聞	申報	兵工廠, 造船局, 總務局, 国債
第23号	東瀛伝信	中外新聞	銀行, 裁判官
第25号	外交設館 / 質物新章	申報	人員, 外交官 / 質店
第27号	論洋債利弊	申報	国債
第28号	日本新例	益聞錄	人員, 外交官, 外務省
第29号	電報局.../來札附登	循環日報	電報局, 委員

그 밖에 「政府·議院·銀行·人員·委員·国債」등도 일본어 어휘 후보군에 넣어 제시하였으나 한성순보 보다 먼저 중국에서 발간된 선교사들이 발행한 遐迩貫珍(1853-56)에 그 용례가 보이므로 일본어 어휘로 속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 중국계 신문을 뉴스源으로 하는 기사에는 일본어 어휘가 극소수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

### 3.3.3 歐美 신문을 뉴스源으로 하는 기사

한성순보에는 歐美 지역 신문을 뉴스源으로 적은 기사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俄京新聞云...’ ‘英國新聞紙云...’ ‘外國報云...’ ‘倫敦時事新報曰...’ ‘印度報載...’ 등과 같이 뉴스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데 이 歐美 신문을 출처로 하는 기사에 일본어 어휘가 大藏省, 予算, 經濟 등 102단어나 출현하고 있다.

〈표8〉은 歐美 신문을 뉴스 출처로 표시한 기사에 나오는 일본어 어휘의 예를 든 것이다. 歐美 신문은 歐美 여러 나라의 언어로 발행하였을 것이므로 이들 기사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면 이들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한대로 한성순보 편집진에는 歐美 여러 나라의 언어를 해독할만한 사람이 없어서 기사 작성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이들 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작성되었을까? 필자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歐美 신문을 뉴스源으로 하는 기사는 歐美 신문을 직접 읽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발행한 일어 신문 기사를 입수하여 이노우에 가쿠고로 등 일어를 아는 사람이 한문으로 번역한 것일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기사 작성 방법 자체를 설명할 수 없으며, 또 이들 기사 속에 일본어 어휘가 포함된 사실을 납득시킬 수 없다.

〈표8〉 歐美 신문을 뉴스源으로 하는 기사에 나오는 일본어 어휘

호수	기사명	뉴스源	추출한 일본어 어휘
第6号	中国兵備	独逸国新聞	常備兵, 独逸国, 炮兵, 議院
第9号	中国兵勢	俄国新聞	常備兵, 軍団
第16号	伊国日盛	英京時事新報	兵役, 博覽會, 博物館, 電信局, 高等学校, 技術学校, 汽船, 鐵道, 図書館, 文庫, 郵便局
第18号	美国官俸	倫敦時事新報	国会, 判事長, 税関長, 議長, 議員, 造幣局長
第19号	俄国增加地租	俄京新聞	大藏省, 予算
第26号	英国官船衛所略表	倫敦兵事新報	海峡, 甲鉄艦, 炮艦, 炮艇, 旗艦
第29号	欧米諸国貨幣額	英国經濟雜誌	經濟, 委員, 議會
第29号	美国民選議院議案	独逸官報	民選議院, 議案
第30号	印度鐵道	倫敦經濟雜誌	国会, 基地, 募集, 食品, 鐵道
第30号	埃匈海陸軍費予算表	法国官報	常時費, 臨時費, 軍艦, 戰艦
第30号	巴里府火災統計表	法国新聞	警視庁, 統計表
第31号	瑞西兵制	法国官報	參謀部, 服務員, 工兵, 炮兵, 師団, 書記官

歐美 신문을 뉴스源으로 하는 기사가 일본에서 발행된 것이라는 추측은 다음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순보에 게재된 歐美 신문의 이름은 거의가 일본에서 발행하는 신문 이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당시 신문 이름을 「○○報」로 부르는 것이 보통이었고<sup>8)</sup> 「○○新聞」이라고 부른 경우가 없었다. 「○○新聞」이라는 이름은 당시 동양에서는 일본 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官報」나 「時事新報」 「經濟雜誌」라는 이름도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独逸国新聞」이라든지 「倫敦時事新報」 「英國國經濟雜誌」 「法國官報」 등은 중국에서 발행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歐美 신문을 뉴스 출처로 표시한 기사는 기사 원본이 일본 신문이었고 한성순보는 이들 일본 신문 기사를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3.3.4 뉴스源이 명시되지 않은 기사

〈표2〉에서 기술한 것처럼 한성순보에는 기사의 뉴스源이 명시되지 않은 기사가 169건이나 되는데 이들 기사에 포함된 일본어 어휘는 802단어나 되어 도입된 일본어 단어 1116개

8) 이 시기에 발행된 중국신문의 이름에 대해서는 卓南生(1990)을 참조할 것

의 79.1%나 차지한다. 뉴스源이 명시되지 않은 기사의 문체적 특징으로는 짧은 보도문에는 그 수가 적고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과 歐美 여러 나라의 제도나 과학문명, 군사, 산업, 학술 등을 소개하는 「集錄」이나 「論說」 등이 많다. 그리고 중국 사정을 다룬 기사는 거의 없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내용면에서는 歐美 여러 나라나 일본의 지리와 역사를 다룬 것이 가장 많고 그밖에 근대 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분야, 예를 들면 정치·사회와 교통, 무역, 산업 관련 내용이 많다. 용어 사용면을 보면 일본어 어휘가 주로 나오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 중국에 와 있던 서양 선교사들이 사용하던 용어가 주된 것도 있고 이들 두 가지가 혼재된 기사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원래의 기사를 추측해 보면, 뉴스源이 명시되지 않은 기사의 원자료는 당시 일본의 계몽서이거나 서양 문물을 소개한 책자, 또 중국에 와있던 서양 선교사의번역서, 저서 등이 주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9>는 일본어 어휘가 많이 포함된 기사 분야와 그들 기사 속에 나오는 일본어 어휘를 일부 예시한 것이다. 일본어 어휘가 많이 출현한 기사 분야는 역사와 지리 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정치·사회 분야와 산업 재정 분야, 법률 관련 분야의 순으로 되어 있다.

1880년대 전후는 일본의 신문명 어휘 조어가 활발했던 시기이면서 또 중국에 와 있던 서양 선교사의 번역어가 일본에 영향을 주던 시기이다. 당시 일본에서 사용되던 신문명 어휘와 재중국 서양 선교사들의 용어가 함께 한성순보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다.

<表9> 뉴스源이 명시되지 않은 기사 분야와 사용된 일본어 어휘수

기사 분야	일본어 어휘수	기사명 예시(괄호안은 수록 호수)
歴史·地理	260	歐羅巴洲(2) 亜米利加洲(3) 日本更新(10) 美国誌略統稿(14), 伊国誌略(30), 和蘭誌略(31)
政治·社会	129	會社設(3) 英人演說(7), 美國大統領(32), 歐米美方政治(11)
産業·財政	123	英廷歲入(17), 俄国農業(16), 博覽會說(15), 會社說(3), 泰西郵制(15)
法 律	83	公法說(34), 出版權(15), 歐米租制(16), 歐美徵兵法(11), 泰西法律(7)
交通·貿易	63	法国輸出會社(31), 航海說(27), 各外国貿易(22), 泰西運輸論(12)
科学技術	51	電報說(9), 各国海底電線表(9), 論電氣(4), 火輪船速力說(33)
教 育	49	学校(15), 泰西各国小学校(32), 泰西農学校(5), 職工学校規則(26)
軍 事	44	俄国海軍省布示(5), 俄国兵勢(31), 法國兵備記略(34), 各國新製軍艦表(7)
合 計	802	

끝으로 일본어 어휘가 주로 사용된 기사와 선교사가 사용한 기사, 또 이들이 혼재된 기사 예를 한두 개씩 들어 어떤 어휘가 각 기사에 실렸는지를 살펴기로 한다.

### 3.3.4.1 일본 한자어 중심 기사

○제7호 : 「泰西法律」

二字語: 東洋, 罰金, 法廷, 檢事, 警官, 宗教

三字語: 弁護人, 不文律, 成文律, 純全律, 大審院, 檢察官, 書記官,  
司法省, 違警罪, 重懲役, 重禁錮,

四字語: 高等法院, 無期徒刑, 有期徒刑

○제23호 : 「奥国政府一歲出入予算表議案說明」

二字語: 分担, 國會, 旅券, 買取, 美術, 年度, 消却, 演說, 議案,  
議長, 原料

三字語: 保證金, 代議士, 酒造稅, 視察費, 予算表, 運搬費, 資本金

四字語: 公立學校, 官立學校, 私立鐵道, 消費物稅

### 3.3.4.2 선교사 용어 중심 기사

○제1호 : 「論洲洋」 「馬達加斯加島事件近報」

二字語: 群島, 諸島, 島國, 關係, 國民, 政府

四字語: 白色人種, 黑色人種, 黃色人種, 棕色人種

○제9호 : 「電報說」

二字語: 電池, 電纜, 電力, 電路, 電線, 電学, 動力, 放電, 槓杆, 回路,  
鐵路, 陽極, 陰極, 郵政, 字母

三字語: 電信機, 電信局, 副電池, 礮強水, 千里鏡, 正電池

四字語: 磁鐵裝置, 電氣伝信

### 3.3.4.3 일본어 어휘와 선교사 용어가 같이 출현한 기사

○제3호 : 「會社說」

일본어 어휘: 會社, 社員, 鐵道, 役員, 組織

선교사 용어: 本錢, 電線, 股本, 股票, 國勢, 火車, 結社, 煤灯,  
商會, 鐵路, 議會, 政府

○제12호 : 「美國誌略」

일본어 어휘

二字語: 公立, 鐵道, 郵便, 資金

三字語: 常備兵, 大統領, 大學校, 小學校, 中學校

四字語: 合衆共和, 上院議員, 下院議員, 學齡兒童

선교사 용어

二字語: 國債, 內閣, 農業, 破産, 私立

三字語: 出入貨, 入口貨, 義勇軍

四字語: 白色人種, 黑色人種

#### 4. 마치면서

본고는 근대 일본어 어휘의 한국어 유입 문제를 밝히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한성순보의 기사에 사용된 일본어 어휘를 조사한 것이다. 본고를 통하여 밝혀진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한성순보 기사 중 일본어 어휘가 주로 도입된 부분은 외국 뉴스를 다룬 부분이다.
- ② 한성순보의 외국 기사 부분에 일본어 어휘가 사용된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한성순보 기사 작성시 주로 중국 일본의 신문과 서적을 뉴스源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또 하나 이유는 일본인을 번역원으로 신문 발행진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본어 어휘를 도입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 ③ 한성순보에 도입 사용된 일본어 어휘는 필자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로, 현재까지 밝혀진 단어수는 1116단어에 달한다.
- ④ 한성순보에 일본어 어휘가 주로 사용된 기사는 뉴스源이 명시되지 않은 기사에 많으며 이들 기사는 서양과 일본의 역사·지리, 정치·사회, 산업·경제 등 문명개화를 설명하는 기사들이다.

필자는 19세기말 이후 한자문화권의 신문명 어휘 성립이 상호 교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 교류의 주요 매개체로 각종 서적과 매스컴을 꼽아왔다. 본고는 그 간 필자의 추측이 잘못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금후 다른 신문과 잡지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본고는 아직 보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과제로서 지적할 것은 어떤 단어를 일본어 어휘로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금번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한중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일본어 어휘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원래는 단어 하나 하나의 역사를 연구하고서 판단할 문제이다. 또 한 가지는 한성주보와의 연관성을 연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한성주보는 한성순보가 폐간된 뒤 약 1년 뒤 발간된 신문으로 한성순보의 발행진이 거의 참여하였고 기사 작성 방법도 비슷하였으므로 두 신문의 연속성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신문을 함께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들 문제점을 포함한 제반 사항은 후일의 연구에 기하기로 한다.

#### 参考文献

문성규(1983) 「한성순보와 옥스포드가제트 비교연구」 『신문과방송』 153,  
 閔賢植(1985) 「開化期 國語의 研究」 『國語教育』 53.54,韓國國語教育研究會  
 朴己煥(1998), 近代初期 韓國人의 日本留學-, 『日本學報』 40, 韓國日本學會, 1998.5  
 朴英燮 『開化期國語 語彙資料集』 1-5  
 배수찬(2006) 『漢城旬報』의 글쓰기 인식에 대한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1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宋敏(2001,2002) 「開化期の 新生漢字語 研究」 1,2, 『語文學論叢』 20,21, 國民大語文學研究所

- \_\_\_\_\_(1988), 「日本修信使의 新文明語彙接觸」 『語文學論叢』 7, 國民語文學研究所
- 李光麟(1968) 漢城旬報와 漢城週報에 대한 一考察 『歷史學報』 38, 歷史學會
- 李漢燮(1998) 朴泳孝의 建白書에 現れる 日本漢語について; 近代における 日韓兩語の 出会いを 探る ため 『國語語彙史の研究』 17, 國語語彙史研究會
- \_\_\_\_\_(2003) 近代における 日韓兩語の 接觸と 受容について 『國語學』 54-3, 국어學會(日本)
- 鄭大撤(1984) 「한성순보· 주보의 개화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학논집』 5,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_\_\_\_\_(1986) 「開化期 新聞의 新聞論에 관한 考察」 『韓國學論集』 10-1, 漢陽大韓國學研究所,
- 鄭晉錫(1983) 「漢城旬報와 週報의 뉴스源」, 『韓國言論學報』 16-1, 韓國言論學會
- \_\_\_\_\_(1983) 「漢城旬報 週報에 관한 研究」 『新聞研究』 36. 관훈클럽
- \_\_\_\_\_(1984) 「最初の近代新聞〈漢城旬報〉」 『言論研究論集』 2. 中央大新聞 放送學大學院, 1984.
- \_\_\_\_\_(2003) 「漢城旬報· 漢城週報해제」 寬勳클럽信永研究基金편찬, 동방미디어주식회사 개발· 제작
- 채백(1989)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서의 이노우에 가쿠고로오의 역할」 『신문과 방송』 220, 한국언론재단
- 崔俊(1969) 「漢城旬報」 의 뉴스源에 대하여 『韓國言論學報』 2-1, 韓國言論學會
- \_\_\_\_\_(1983) 「漢城旬報」 의 史的 意味 - 韓國新聞 100周年을 맞이하면서 『新聞研究』 36, 관훈클럽
- 한보람(2005) 1880년대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을 위한 국제정보수집 - 『한성순보(漢城旬報)』 의 관련기사 분석 - 『진단학보』 100, 진단학회
- Federico Masini (1993) *The Formation of Modern Chinese Lexicon and its Evolution toward a National Language :The period from 1840 to 1898.*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Monograph Series No.6, Berkeley, U.S.A.
- 荒川清秀(1997) 『近代日中学術用語の形成と伝播—地理学用語を中心に』 白帝社
- 稻葉繼雄 (1987) 「井上角五郎と『漢城旬報』『漢城週報』—ハングル採用問題を中心に—」 筑波大学文芸·言語学系編 『文芸言語研究·言語篇』 12卷
- 井上角五郎 (1891) 『漢城酒殘夢』、東京春陽書樓
- \_\_\_\_\_(1934) 『福澤先生の御朝鮮經營と現代朝鮮の文化とに就いて』、非賣品
- 王力 (1944~45) 『中国語法理論上,下』 商務印書館
- 上垣外憲一 (1982) 『日本留學と革命運動』, 東京大學出版會
- 講座日本語の語彙9~11 (1983) 『語誌 I、II、III』 明治書院
- 齊藤 毅 (1977) 『明治のことば』 講談社
- 櫻井義之 (1964) 『明治と朝鮮』、櫻井義之先生還曆記念會
- 佐藤享 (1980) 『近世語彙の歴史的研究』 桜楓社



- \_\_\_\_\_ (1983) 『近世語彙の研究』 桜楓社
- \_\_\_\_\_ (1986) 『幕末・明治初期語彙の研究』 桜楓社
- さねとうけいしゅう (1970) 『中国人日本留学史増補版』 くろしお出版社
- \_\_\_\_\_ (1973) 『近代日中交流史話』 春秋社
- 朱京偉(2003) 『近代日中新語の創出と交流－人文科学と自然科学の専門語を中心に』 白帝社
- 沈國威[1994] 『近代日中語彙交流史』、笠間書院
- 卓南生(1990) 『中國近代新聞成立史』、ぺりかん社
- 譚汝謙(1977) 「近代中日文化關係的鱗爪—日語外来詞的搜集和弁認問題商榷—」  
『香港留日学生会年報3』
- 陳力衛(2001) 『和製漢語の形成とその展開』、東京: 汲古書院
- 古庄豊 (1919) 『井上角五郎君略伝』、井上角五郎君功勞表彰會  
『福澤諭吉伝』 『福澤諭吉書簡集』 『福澤諭吉伝全集』 など福澤諭吉関連資料

편 무 진(단국대)

개화기 일본 신문명 어휘의 도입에 대하여

- 『漢城旬報』를 중심으로 -

1.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 외에 박영효가 신문 발행을 위하여 일본에서 데리고 왔다는 일곱 명의 일본인은 누구누구인가.

일본어의 어휘와 관련한 사항이니 만큼, 이노우에(井上) 만이 관여한 것인가, 다른 일본인의 개입은 완전히 배제해도 무방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다른 일본인들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일본어에서 유입되었다고 보는 대상어의 선정 기준과 분석 방법에 대하여 보충 설명.

발표자도 결론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기사 내용 중의 해당 단어(어휘)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였는가, 그리고 그 단어가 일본에서 유입되어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는 어휘사적인 일면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그 과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발표자가 일본 한자어의 추출 방법으로 두 번째로 제시한, 한성순보 이전에 한국에서 사용된 일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다른 역대 문헌자료의 범위에 대하여 그 타당성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3. 일본 어휘의 분포가 『漢城旬報』의 「各國近事」와 「論說·集錄」의 두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전무한가.

특히 이 점을 한자어와 관련하여 어휘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갈 경우 「各國近事」와 「論說·集錄」 이외의 부분에서 일본어의 어휘가 도출된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본 연구의 전망을 겸하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어의 어휘로 판단한 단어가 들어간 기사 내용의 예문을 제시했다라면 본 『漢城旬報』의 자료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보다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 韓日 兩國의 漢字政策에 대한 理解와 問題點

- 이우석 (영산대 교수)

지정토론 - 황규삼 (서일대 교수)

## 韓日 兩國의 漢字政策에 대한 理解와 問題點

이 우 석 (영산대 교수)

### 1. 問題의 提起

요사이 신종플루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全世界가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함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하여 철저한 소독과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는 권고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신문이나 방송을 접하다 보면 ‘세척제’가 ‘세정제’로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아 매우 안타깝다.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은 과연 어느 것이 맞는지 몹시 혼란스러울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척제’가 맞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래의 <表1>에서 보듯이, 국내의 주요 국어대사전들이 ‘세정’과 관련된 파생어휘들을 엄연한 標題語로서 등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表-1> 주요 국어대사전의 표제어

우리말 큰사전 (한글학회, 1997 6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 1999 초판)	연세 한국어사전 (연세대학교, 1998 초판)
세정 (-하다) 세정제 ----- 세척 (-하다) 세척기 세척병 세척장 세척제	세정 (-하다) 세정력 세정액 세정제 ----- 세척 (-하다) 세척기 세척력 세척병 세척소 세척액 세척장 세척제	세정 (-하다) 세정제 ----- 세척 (-하다) 세척제

이 뿐만 아니다. 국내의 한 통신회사는 자사의 광고문구에 「최첨단」을 「최선단」으로, 즉 「첨단(尖端)」을 「선단(先端)」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한 자동차회사는 「굴착기」를

「굴삭기」로, 즉 「굴착(掘鑿)」을 「굴삭(掘削)」으로 잘못 사용한 채 공사장을 누비고 있다.

그리고 「종합무역상사」를 「총합무역상사」로, 즉 「종합(綜合)」을 「총합(總合)」으로 잘못 사용하는가 하면, 「전형료」를 「선고료」로, 즉 「전형(銓衡)」을 「선고(選考)」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또한 「장애인」을 「장해인」으로, 즉 「障礙」를 「障害」로, 「屍體」를 「死體」로 잘못 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예들은 이 밖에도 있는데, 이처럼 왜곡·변질된 단어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언어생활에 심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 原因에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중 그 遠因은 일본의 국어정책 중 漢字의 사용에 관한 규정에 있고, 그 近因은 우리나라의 국어정책에 있다. 日本語의 表記에 있어서 漢字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효용성이 높은 존재인데, 여기에서 먼저 韓日 兩國語에 있어서의 漢字의 位相에 대해서 살펴 본 후, 兩國의 漢字使用에 관한 政策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2. 兩國語에서의 漢字의 位相

- (1) 지금의 世界는 歷史的으로 볼 때 資本主義의 最盛期로 접어 들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奇異하게도 資本主義의 基本 理想인 휴머니즘은 더욱 深刻하게 挑戰받고 있음을 直視해야 한다.
- (2) 지금의 世界는 역사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의 最盛期로 접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이하게도 자본주의의 基本 理想인 휴머니즘은 더욱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음을 直視해야 한다.

위의 (1)의 예문은 한글과 漢字를 혼용해서 표기한 「國漢混用文」, 즉 「漢字混用文」이며, (2)는 같은 내용의 문장을 한글만으로 표기해서 나타낸 「한글專用文」이다. 다음에 日本語의 例文을 보자.

- (3) 資本主義の牙城である米国でさえ、市場原理への批判や警戒心は高まっている。日本にとって、規制緩和や行政改革による経済的自由の拡大は重い課題だが、市場に任せれば全てうまく行く、…
- (4) しほんしゅぎのがじょうであるべいこくでさえ、しじょうげんりへのひはんやけいかいしんはたかまっている。にほんにとって、きせいかんわやぎょうせいかいかくによるけいざいてきじゅうのかくだいはおもいかくだいが、しじょうにまかせればすべてうまくいく、…

위의 예문 (3)은 漢字와 日本의 文字인 「假名」를 혼용해서 표기한 일반적인 「漢字假名混用文」이다. 「漢字假名混用文」이란 名詞나 動詞·形容詞의 語幹 등은 漢字로 쓰고 助詞·助動詞나 活用語尾 등은 「假名」로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예문 (4)는 같은 내용의 문장을 漢字 대신에 모두 「假名」로 표기해서 나타낸 「假名專用文」이다.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韓國語에서는 漢字나 한글이나 一字一音節이기 때문에 漢字로 표기하나 한글로 표기하나 글자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즉 위의 例文 (1)과 (2)에서 보듯이, 두 例文 모두 글자수가 같으며, 따라서 문장의 길이도 꼭 같다.

그러나 日本語에 있어서의 漢字는 일반적으로 一字多音節이며, 「假名」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一字一音節이다. 따라서 예문 (3)의 「漢字假名混用文」을 (4)와 같이 「假名專用文」으로 나타내면, 글자수가 많이 늘어나 경제적이지 못한 긴 문장이 되어 버린다.

또한 韓國語에는 띄어쓰기가 있지만 日本語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日本語에서는 漢字를 사용함으로써 語節(文節)의 첫머리가 분명해져, 自立語와 助詞·助動詞 등과의 구별이 명료해진다. 요컨대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문제점을 漢字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日本語는 韓國語에 비해 音節의 수가 약 1/10정도로 적기 때문에 同音異義語가 韓國語보다 훨씬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同音異義語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漢字의 使用은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日本에서도 漢字를 사용하지 않고, 「假名」 중 「片假名」를 전용하자는 이른바 「假名專用」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假名專用文」은 다음과 같은 「漢字假名混用論」의 논리에 밀려 설득력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 ① 漢字의 使用에 의해 語節(文節)의 첫머리가 명확하여 읽기가 용이해진다.
- ② 漢字를 使用함으로써 自立語와 助詞·助動詞 등과의 구별이 뚜렷해진다.
- ③ 漢字의 使用으로 自立語의 表記에 있어서 시각적인 인상이 분명해진다.
- ④ 漢字의 使用에 의해 띄어쓰기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 ⑤ 漢字를 使用함으로써 「假名專用文」의 非經濟性이 減少된다.

이상에서 韓日 兩國語를 비교해 보았는데, 韓國語에서는 漢字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문장의 표기나 의미파악에 있어서 日本만큼 큰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며, 따라서 漢字의 位相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에 비해 日本語의 경우는 문장의 표기나 의미파악에 있어서 「漢字假名混用文」은 상당히 효율적이며, 따라서 漢字는 日本語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 그 位相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3. 日本의 漢字政策

漢字의 種類, 즉 字種은 엄청나게 많다. 그러나 그 많은 漢字를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日本은 1946년에 「當用漢字」라 하여 1,850字를 선정해서 사용하는 漢字制限政策을 채택했다. 1948년에는 「當用漢字音訓表」에서 漢字의 音訓의 범위를 정했으며, 1949년에는 「當用漢字字體表」에서 漢字의 字體를 정했다. 이 때 획수가 적고 字體가 간단한 것은 康熙字典의 正字體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획수가 많고 字體가 복잡한 漢字는 다음 (5)의 예와 같이 略字化한 소위 新字體를 채택하였다. 참고로 漢字에 대한 韓國語 音を ( ) 속에 나타내 둔다.

- |            |        |        |        |        |
|------------|--------|--------|--------|--------|
| (5) 壓→压(압) | 醫→医(의) | 榮→荣(영) | 應→应(응) | 假→假(가) |
| 畫→画(화)     | 會→会(회) | 學→学(학) | 樂→樂(락) | 關→関(관) |
| 氣→气(기)     | 區→区(구) | 號→号(호) | 國→国(국) | 實→実(실) |
| 證→証(증)     | 體→体(체) | 賣→売(매) | 變→变(변) | 寶→宝(보) |

豫→予(예)    禮→礼(례)    臺→台(대/태)    辯/辨/瓣→弁(변/판)

1956년에는 「常用漢字」 1,850字에 포함되지 않는 漢字의 表記는 「同音의 漢字로 바꿔쓰기」, 즉 音이 같고 뜻이 유사한 漢字로 바꾸어 쓴다는 代用漢字政策을 취했다. 다음의 (6)과 (7)이 그 例이다.

- (6) 廻送→回送(회송)    火焰→火炎(화염)    活潑→活發(활발)    稀少→希少(희소)  
 畸形→奇形(기형)    坐礁→座礁(좌초)    車輛→車兩(차량)    讚辭→贊辭(찬사)  
 食慾→食欲(식욕)    蒸溜→蒸留(증류)    日蝕→日食(일식)    褪色→退色(퇴색)  
 颱風→台風(태풍)    長篇→長編(장편)    顛覆→轉覆(전복)    反撥→反發(반발)  
 叛亂→反亂(반란)    編輯→編集(편집)    \*磨滅→摩滅(마멸)    聯盟→連盟(연맹)

- (7) 暗誦(암송)→暗唱(암창)    衣裳(의상)→衣裝(의장)    叡智(예지)→英知(영지)  
 潰滅(궤멸)→壞滅(괴멸)    徽章(휘장)→記章(기장)    掘鑿(굴착)→掘削(굴삭)  
 蹶起(궤기)→決起(결기)    昂騰(양등)→高騰(고등)    弘報(홍보)→廣報(광보)  
 撒水(살수)→散水(산수)    刺戟(자극)→刺激(자격)    屍體(시체)→死體(사체)  
 障礙(장애)→障害(장해)    銓衡(전형)→選考(선고)    洗滌(세척)→洗淨(세정)  
 尖端(첨단)→先端(선단)    綜合(종합)→總合(총합)    拋棄(포기)→放棄(방기)  
 龐大(방대)→膨大(팽대)    \*妄動(망동)→盲動(맹동)    諒解(양해)→了解(요해)

1981년에 이르러서는 그 동안의 연구·검토 결과 1,850字에 다시 사용빈도가 높은 95字를 추가·보완하여 1,945字를 「常用漢字」로 제정하였으며, 日本政府는 이를 내각고시로 공표하여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이 상용한자는 법령·공용문서·신문·잡지·방송 등 일반 사회생활에 있어서 日本語를 表記할 때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常用漢字」에 있는 漢字라도 漢字의 音이 같을 경우, 사소한 漢字의 意味의 차이는 무시하여 이를 하나로 통일하여 쓰는 「同音語의 統合」정책도 채택하고 있다. 「充分→十分」으로 통일하여 쓰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위의 설명처럼 日本에서의 漢字는 略字體를 채택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正字體로 나타내기로 한다.

위의 예 (11)과 (12)는 성격이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5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日本은 이와 같이 통일되고 일관된 국어정책하에서 漢字를 자기 실정에 맞게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韓國의 현실은 어떠한가?

#### 4. 韓國의 漢字政策

1945년 독립 이후 韓國語의 表記法은 「한글전용론」과 「漢字混用論」의 틈바구니 속에서 수없이 많이 바뀌어 왔다. 1948년 10월 9일, 한글전용법이 법률 제 6호로 공포된 이래 우리의 문자정책은 현재까지 한글전용이 10번, 漢字混用이 7번으로 뒤바뀌는 등 한 마디로 정책부재의 길을 걸어온 것이다. 한글전용론자와 漢字混用論者 사이의 격렬한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주된 論理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한글전용의 論理 〉

- ① 漢字는 字數가 많고 획수도 복잡하여 사용하기 불편하다.
- ② 한글은 기계화의 용이성과 실용성에 있어서 우수하다.
- ③ 한글은 表音성과 문자구조의 간결성에 있어서 우수하다.
- ④ 言文一致의 측면에서 漢字의 使用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⑤ 민족문화를 보존하고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

〈 漢字混用の 論理 〉

- ① 漢字는 의미파악에 있어서 정확하고 빠르다.
- ② 어휘의 반 이상이 漢字語이기 때문에 그 모태인 漢字를 알아야 한다.
- ③ 同音異義語의 경우 한글표기로는 식별이 쉽지 않다.
- ④ 表意文字인 漢字는 조어력과 축약력이 우수하다.
- ⑤ 漢字 폐지는 전통문화와 동양문화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한다.

한편 1970년 이후 漢字는 初·中·高校의 교과서에서 그 모습을 감추었다가 1975년부터 다시 中·高校의 교과서에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漢字混用이 아니라 漢字를 ( )속에 넣어 보조적으로 표기하는 漢字併用이다. 이러한 漢字併用政策은 지금까지 이르고 있으며 현재 初·中·高校에서 「國語」 시간 중의 漢字教育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1972년에 제정된 漢文教育用 「基礎漢字」 1,800字를 「漢文」 시간에 가르치고 있을 뿐이며, 따라서 학교에서의 漢字教育은 매우 빈약한 편이다.

1970년 이전까지는 漢字로 구성되는 漢字語는 거의 漢字로 表記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漢字가 아닌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러한 현상은 신문·잡지를 비롯한 각종 서적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경쟁이 치열해진 신문사나 출판사들이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 뒤지는 소위 「한글세대」를 독자층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되도록이면 漢字表記를 피하고 한글表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表2>는 「朝鮮日報」의 社說에 나타난 漢字語와 漢字表記의 비율의 변화를 조사한 자료이다.

〈 表2 〉 漢字語의 比率과 漢字表記率

年 代	1920年	1945年	1960年	1970年	1990年	2009年
漢字語의 比率(%)	68.2	73.3	58.5	53.7	58.3	51.2
漢字表記率(%)	99.5	99.8	90.3	80.1	7.8	1.4

<表2>에서 알 수 있듯이, 신문에서 차지하는 漢字語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漢字表記의 비율은 1960年代까지 90%이상을 웃돌다가 1990年代에 들어서는 7.8%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그 대신에 한글로 表記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급기야 2009년에는 1.4%로 거의 漢字表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漢字表記率의 감소는 한글전용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다.

- (8) a. ... 필요에 따라 존재해 왔지만 行協에 관한한 엄연한 독립국인 우리로서는 堪耐하기 힘든 조항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1991.1.5)





- b. 체첸의 戰火(전화)가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軍(군)의 대공세와 체첸군의 強韌(강인)한 저항으로 1천여명의 사망자가 ... (1995.1.4)
- c. 인간복제(複製) 등 유전(遺傳)공학에 대한 준칙을 마련하는 것도 빼 놓을 수 없는 과제다. (1999.1.4)
- d. 국방부 그리고 국방장관과 차관에게 중대한 이상(異常)이 있지 않고선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2009.8.27)

위 (8a)-(8d)는 1990年代와 2009年의 「朝鮮日報」의 社說이다. (8a)는 漢字表記의 비율이 낮은 문장이기는 하지만, 漢字混用을 하고 있는 예이다. (8b)-(8d)는 모두 다 漢字併用을 하는 예인데, 그 중 (8b)는 漢字가 우선이고 한글은 ( ) 속에 넣어 보조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에 비해 (8c)와 (8d)는 한글이 우선이며 漢字는 ( ) 속에 넣어 보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90年代 초반에서 중반, 중반으로 오는 동안 新聞社의 社說도 漢字混用 → 한자우선의 漢字併用 → 한글우선의 漢字併用으로 급격히 변하면서 그表記에 있어서 한글전용 정책으로 흐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日本の 「常用漢字」 1,945字는 법령, 공용문서, 신문, 잡지, 방송 등 일반 사회생활에 있어서 日本語를 表記할 때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이에 비해 1972年에 제정된 韓國의 「基礎漢字」 1,800字는 漢文教育을 실시하기 위해 선정한 漢字로서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쓰이지 않는 실정에 있다.

한편 日本에서는 획수가 많고 字體가 복잡한 漢字는 略字化하여 사용하고 있는 데에 반해 韓國에서는 漢字의 字體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 없다. 따라서 略字가 아닌 正字가 正式字體로서 인정받는 셈이다. 다만 「朝鮮日報」에서 우리의 옛 문헌에 나오는 略字 90字를 채택하여 1983년 4월 26일부터 사용해 온 적이 있다. 이 略字體는 日本의 常用漢字表의 字體와 별 차이가 없어 日本의 것을 모방했다는 오해를 받은 적도 있다. 이 略字使用은 1993년 4월 10일까지 약 10년간 계속되었으나 그 후 현재까지 다시 正字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中國의 簡字體나 日本의 略字體처럼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간편하고 편리하게 略字化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사용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볼 수 있겠으나 이는 아직 요원한 일로 생각된다. 그것은 漢字를 混用할 것인가, 아니면 한글만 전용할 것인가 하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漢字를 쓰기는 쓰되 자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日本은 위에서 살펴 본 대로 정부의 일관된 국어정책하에서 漢字를 하나의 문자로 적극 수용하여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韓國의 경우 정부의 일관성이 결여된 문자정책 속에서 漢字教育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漢字語를 한글로 표기하는 경향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한글전용론」과 「漢字混用論」의 뿌리깊은 대립이 있기 때문이다.

## 5. 政策의 差異에서 오는 問題點

이미 설명한 것처럼, 日本에서는 常用漢字 1,945字에 포함되지 않는 漢字의 表記에 대해서는 「同音의 漢字로 바꿔쓰기」, 즉 위의 (6)과 (7)의 예와 같이 代用漢字政策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代用漢字를 韓國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위의 (6)과 (7)의 예에서 몇 가지를 선정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9) 廻送→回送(회송)    活潑→活發(활발)    稀少→希少(희소)    畸形→奇形(기형)  
 車輛→車兩(차량)    讚辭→贊辭(찬사)    日蝕→日食(일식)    颱風→台風(태풍)  
 叛亂→反亂(반란)    諷刺→風刺(풍자)    編輯→編集(편집)    聯盟→連盟(연맹)

(10) 暗誦(암송)→暗唱(암창)    掘鑿(굴착)→掘削(굴삭)    昂騰(양등)→高騰(고등)  
 弘報(홍보)→廣報(광보)    刺戟(자극)→刺激(자격)    屍體(시체)→死體(사체)  
 障礙(장애)→障害(장해)    銓衡(전형)→選考(선고)    洗滌(세척)→洗淨(세정)  
 尖端(첨단)→先端(선단)    綜合(종합)→總合(총합)    龐大(방대)→膨大(팽대)

위의 例 (9)와 (10)에서 화살표 앞의 前者가 원래의 漢字語인데, 뒤의 後者에서 보듯이 그 일부가 代用漢字에 의해 대체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물론 前者와 後者の 日本語 音은 똑 같다. 따라서 日本語에서는 前者를 後者로 대체해서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물론 漢字는 그 하나 하나가 뜻을 갖고 있는 表意文字이므로 단어의 의미가 변질될 수도 있겠지만, 日本에서는 漢字의 音이 같다면 사소한 漢字의 의미의 차이는 무시하고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 韓國語의 音으로 읽어 버릴 경우, (9)의 例들은 前者와 後者の 音이 같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韓國人에게는 「音이 같을 경우 뜻이 유사한 漢字로 바꾸어 쓴다」는 「代用漢字」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파악에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例를 들면, 「일식」을 「日蝕」→「日食」처럼 代用漢字로 나타낼 경우 「태양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가리는 현상」과 「일본식의 음식」을 혼동해 버리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10)의 例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즉 前者와 後者の 漢字音이 다른 환경에서 前者를 後者로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엉뚱한 단어가 되어 우리말이 완전히 왜곡변질되어 버리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척(洗滌)→세정(洗淨), 첨단(尖端)→선단(先端), 굴착(掘鑿)→굴삭(掘削), 종합(綜合)→총합(總合), 전형(銓衡)→선고(選考), 장애(障礙)→장해(障害), 시체(屍體)→사체(死體)가 된 것도 이와 같은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말이 완전히 왜곡변질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소위 「한글세대」에게 경종을 울리려 해도 漢字에 대한 기본소양이 없기 때문에 문제의식에 접근할 수가 없다. 漢字教育을 도외시하는 한글전용정책에 따라 漢字를 모르는 「한글세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말이 왜곡변질되는 이와 같은 현상은 안타깝게도 더욱 확산되어 갈 것이다.

## 6. 맺음말

최근에 초등학교에서부터 漢字教育을 실시해야 한다는 문제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의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신문지상의 논쟁에서나 방송프로그램의 토론에서나 찬반양론에 대한 자신의 주장은 조금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린다. 「한글전용론」과 「漢字混用론」의 뿌리 깊은 대립에서 기원하는 이 열띤 논쟁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다. 물론 어느 쪽이나 입장일단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필자는 위에서 지적한 대로 漢字에 대한 기본소양이 거의 없는 「한글세대」가 증가할수록 우리말이 왜곡변질되는 현상이 심화되어 갈 것인데, 이를 바로 잡아 올바른 언어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1972년에 제정된 漢文教育用 「基礎漢字」 1,800字를 「漢文」시간이 아닌 初中·高校의 「國

語」시간에 단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漢字教育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字種을 좀더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아울러 획수가 많고 복잡한 字體는 日本의 略字體나 中國의 簡字體처럼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 새로 개발된 자체를 정부가 공인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하는 작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1991년에 한국·중국·일본·대만 등 漢字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이 저마다 다른 형태의 글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혼란을 막기 위해 국제한자진흥협의회가 발족되었는데, 여기에서는 漢字의 字體(字形)統一을 추진하고 있다.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이와 동시에 교과서·공용문서·신문·잡지 등의 표기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한자혼용에서 오는 불편함과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에는 漢字併用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지금과 같이 한자를 ( ) 속에 넣어 보조적으로 표기하는 한글우선의 漢字併用이 아니라, 한글을 ( ) 속에 넣는 漢字우선의 漢字併用이 되어야 효과가 있다. 이러한 교과서나 잡지 등은 漢字教育에 훌륭한 교재가 될 것이다.

다음에, 한자우선의 漢字併用 교재를 통해 漢字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학생·국민들의 분포가 상당히 넓어졌을 경우 완전한 漢字混用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 漢字混用은 되도록이면 「基礎漢字」 1,800字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基礎漢字」 외의 漢字를 써야 할 경우라든가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단어로 바꾸어 쓰는 방법 같은 것을 고안해 내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우선은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해 온 국민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언론인들이나 日本語를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한자에 대한 지식과 韓日兩國의 漢字政策에 대한 인식을 더욱 깊이 하여 소중한 우리말이 왜곡·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일본의 대중문화가 개방됨으로써 물밀듯이 밀려오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 일본어의 여러 가지 어휘, 특히 한자어휘들에 의해 우리말이 훼손되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필자의 제안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이 하루 빨리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일본인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말을 왜곡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 황 규 삼(서일대학)

## 한일양국의 한자정책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오늘날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중국과 대만처럼 완전히 한자만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과 일본처럼 일상생활에서 한자를 다용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한자문화권내에서 한일양국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3국은 모두 한자단어와 글자체에 관해 학술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모두 한자권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금번 발표논문은 우리말의 왜곡, 변질을 막기 위해 초등학교때부터 기본 소양으로 한자교육을 시키고 향후 3국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글자체까지를 생각하게 하는 발표요지문이라고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발표논문을 읽고 의문점이나 토론자의 생각을 기술하고자 한다.

1. 각 예문의 출처가 불명확하므로 출처를 밝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문제제기]에서 연세한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세척]과 [세정]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손발을 씻는 것에 [세척]이 아닌 [세정]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문제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한 遠因과 近因의 설명에 대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3. 한국의 한자정책이 일본과는 달리 [한글전용]과 [한자혼용]의 논리로 확연히 구분되는데 그 근본원이 어디에 있는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4. 발표자의 입장은 일본한자를 그대로 잘못 받아들여 우리말이 완전히 왜곡,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그 대응 방안으로 먼저 국어순화운동을 펼쳐 우리만이 갖고 있는 한자를 간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발표자의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5. 3번과 관련하여 우리말이 완전히 왜곡,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하여 한글세대에게 한자교육을 시키고 일본의 약자체나 중국의 간자체처럼 우리 실정에 맞는 한자를 개발, 사용해야한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어떤 자체를 새로 만들 수 있는지요?
6. 부연하여 1991년 국제한자진흥협의회가 발족되고 한자의 자체를 통일하고자하는 계획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끝으로 언어와 문자는 모두 문화와 지식을 신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자의 正字는 [略字體] [簡字體] 와 더불어 보존되어야한다고 생각하며 正字는 하나의 문화의 源流로서도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일본어에서 한자의 기능

- 황광길 (단국대 교수)

지정토론 - 이동욱 (한양여대 교수)

## 일본어에서 한자의 기능

황 광 길 (단국대 교수)

### 1. 들어가며

일본어에서 한자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 뿐 아니라 부정적인 평가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부정적인 평가의 원인으로서는 한자의 비효율성을 드는 경우가 많다. 즉 학습하는데 드는 노력에 비해 사용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런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1946년의 当用漢字表를 들 수 있다. 이것의 주된 목적은 한자의 제한에 있다는 점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후 상용한자표가 공표되어 한자의 제한에서 사용한자의 기준제시로 한자 사용에 대한 입장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상용한자표에 없는 한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語彙」를 「語い」로 나타내는 것처럼 부자연스런 표기법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표기법은 한자의 역할을 단순하게 의미표시(표의)로 간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 생각된다. 과연 한자의 역할이 이처럼 단순한 것일까?

또 하나 한자에 대한 오해로 종종 등장하는 것이 일본어의 특이성과 관련하여 한자를 언급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高島<sup>1)</sup>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언어의 실체는 당연히 음성인데 일본어의 경우에는 문자가 실체로 인식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인은 특정 음성을 들으면 - 특히 그것이 한어인 경우 - 그것에서 해당되는 한자를 연상하고 이어서 의미가 확정된다는 것이다.”

일본어에서 한자의 역할을 단순하게 표기에 한정하여 설명하거나, 혹은 확대하여 음성에 대체될 만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모두 한자의 기능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는 일본어에서 한자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 한자가 특정 기능을 담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 2. 단어레벨에서 한자의 기능

#### (1) 한자의 조어기능

##### 1) 메이지시대의 이자한어

조어기능이라 하면 물론 한자를 이용한 자음어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양적인 면에서 고유어나

1) 高島俊男 『漢字と日本人』 文芸新書198, 2001년

외래어와 비교해 자음어의 조어기능이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과 더불어 질적인 면을 살펴 보더라도 고유어에 의한 조어가 대부분 복합적구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자음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단순구성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물론 한자의 표의성으로 인해 2자한어의 각각의 구성요소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하여도 전체가 한단위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자의 차이는 분명하고 따라서 고유어와 구별하여 자음어의 조어기능을 문제로 하는 것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자음어에 의한 조어는 메이지시대에 대단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양의 새로운 문물과 개념을 한자의 표의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새로운 조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일본의 근대화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런 당시의 자음어의 생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高島<sup>2)</sup>는 메이지시대의 和製漢語의 조어과정에 대해서 첫째는 의미만을 중시하여 음을 고려하지 않았고, 둘째로는 2자한어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 결과 다수의 동음이의어가 나타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일본어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설명하면 古代 和製漢語의 경우는 예를 들어

「野暮」 「世話」 「心中」 「無茶」 「家老」 「同心」 「神妙」 「芸者」 ……

위의 경우는 문자에 의지하지 않아도 귀로 듣고 바로 어떤 말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메이지시대 和製漢語에서는 그것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電氣와 관련된 말이면 음은 고려하지 않고 모두 「電」字를 포함시켜서

「電灯」 「電線」 「電信」 「電車」 「發電」 「送電」 「停電」 「感電」

처럼 조어되기 때문에 「電灯」과 「伝統」, 「電線」과 「伝染」처럼 많은 동음이의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古代 和製漢語는 메이지시대 한어 신조어와 달리 동음이의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편역상 『漢字百科大事典』에서 かも 시작하는 2자한어 和製漢語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나열되어 있다.

家景 雅語 過狀 加勢 歌仙 歌体 括出 渴水 合壁 活路 課丁 加入 加筆 過褒 過密 華洛 嘉例 還御  
感吟 關係 間歇 看護 鑑札 願主 頑丈 関知 看板 還付 官符 勸弁 願書 肝要

위의 예의 경우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귀로 듣는 것만으로 단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물론 입증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음만으로는 어떤 말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아마도 메이지시대의 신조어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더욱이 문맥에 의지하지 않는 경우는 더더욱 단어파악이 곤란하리라 생각된다. 단, 위에서 언급한 「野暮」世話」 등 일부 어휘의 경우 음만으로 단어 파악이 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미 이 어휘들이 오랜 기간 사용되어 이미 익숙해진 기본적인 어휘라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되며 또 그 중에는 특히 어형상 和語型과 유사한 것이 많다는 점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위의 예 중에도 「家老」와 「過勞」, 「同心」과 「童心」, 「神妙」와 「身命」, 「芸者」와 「迎車」처럼 대부분 동음이의어가 존재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문맥에 의지해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고대의 和製漢語나 메이지시대의 和製漢語나 기본적으로는 동음이의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어의 신조어가 시대를 뛰어넘어 다수 나타나게 되는 것은 우선 발생에 있어서는 당시 한자에 대한 지식이 보편적이어서 한자 신조어에 대한

2) 高島俊男 前掲書 106~110, 150~152P

공통의 이해가 기대된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다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한어가 통용되는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문물이나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점이 동음이의어에 대한 불편보다는 우선하였기 때문이었고 또한 동음이의어에 의한 불편도 문맥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메이지시대의 和製漢語가 가진 동음이의어의 문제점은 당시 造語주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말이지만 일본어가 내포한 근본적인 문제(?)인 단순한 음절구조 및 음운체계의 단순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조어과정에서 동음이의어를 최소화하면서도 길고 산만한 표현이 아닌 가능한 압축적인 표현을 추구하여 대부분 2자한어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에도 어느 정도 동음이의어의 다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 2) 현대의 한자 造語

한자의 표의성을 활용한 조어가 메이지시대에 활발하게 나타났음은 상술한 바와 같지만 그 이후의 한자 造語는 특히 2자한어의 경우는 그다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野村<sup>3)</sup>가 『現代用語基礎知識』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어의 비중이 1960년판 40.2%에서 1980년판 28.8%로 축소되었으며, 1980년 추가된 표제어를 보면 한어는 27.7%로 외래어 58.2%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 한어중 2자한어의 비중은 고작 10.8%에 불과해 메이지시대와 비교해 한어의 조어력 특히 2자한어의 조어력이 매우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3자한어와 4자한어의 비중은 각각 13.7%, 31.3%로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신조어중 한자의 감소와 외래어의 증가에 대해서 한자에 대한 이해능력의 감소와 더불어 외래어의 배경이 되는 영어능력의 향상이 원인으로 지적되곤 하는데, 이것은 메이지시대의 사회환경과 현대의 언어환경을 비교해 보면 납득이 가는 지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한어를 이용한 조어의 감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즉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2자한어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3자 4자한어를 이용한 조어는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메이지시대의 한자에 대한 일반사람들의 지식은 아마도 현대의 그것보다는 훨씬 뛰어난 것이었고 이것이 2자한어 조어의 배경이 되었음은 분명한데 이 당시 2자한어의 조어과정이란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요소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구성하게 되어 전체로서 하나의 단어로써 기능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한어에서 여전히 구성요소인 각 한자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반면에 현대의 2자한어란 이미 구성요소를 통해서 2자한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보다는 전체로서 의미를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保険」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험하고 위험한 일로부터 보장 혹은 보호”라는 구성요소에서 추출되는 의미보다는 전체를 한단위로 파악하여 “제도”라든지 “회사”처럼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울러 이런점은 「國家」의 경우는 더욱 분명하다. 그 의미가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나라와 집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처럼 현대의 한어에서는 2자한어의 구성요소의 독립성이 더욱 약화되어 한 단위화가 더욱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메이지시대의 조어형성 방식은 나타나기 어렵게 되고 새로운 조어형성 방식이 나타나게 된다. 즉 고유어나 외래어에서 흔히 보여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면 「食べる」+ 「方」→ 「食べ方」, 「読む」+ 「始める」→ 「読み始める」처럼 독립성이 있는 두 요소가 결합하여 복합적구성을 가진 말을 만드는 방식이다. 한어에서 2자한어 대신에 3자한어 4자한어가 증가하는 이유는 이처럼 독립성을 가진 두 2자한어가 결합하거나 혹은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고유의 의미 용

3) 野村雅昭 「漢字の造語力」 『漢字講座』



법을 가진 1차 한어계접사의 결합에 의해 복합적구성의 단어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어는 항상 사전에서 표제어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는 마치 고유어의 모든 복합동사가 사전에 모두 기재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겠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어를 사용한 조어과정이 위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필요하면 언제라도 복수의 2차한어를 결합하여 혹은 접사를 결합하여 복합적구성 한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므로 한어의 조어 기능이 위축되었다고 단언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한어의 조어기능이 단순적구성의 한어에서 복합적구성의 한어로 변화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2) 한자의 표의기능 - 동음이의어의 구별

메이지시대 새로운 한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동음이의어가 발생했는데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일본어의 음운체계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술한 바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조어방식 때문에 현재 동음이의어에 의해서 곤란을 받고 있다고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음이의어가 다수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어방식이 상당 기간 계속되었고 또 현재까지 다수의 동음이의어를 가지고 있는 한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규명하는 것이다. 만일 신조어 한어의 동음이의어가 일본어 운용에 치명적이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다른 방식이 선택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언어 현상으로, 상식적일 것이다.

신조어 운용에 대해서 문자언어와 음성언어로 구별하여 생각해 보면 우선 문자언어의 경우에는 주지의 사실처럼 한자란 대표적 표의문자이고 실제로 당시 조어과정이 한자의 의미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만큼 의미구별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 「伝染」와 「電線」, 「伝統」와 「電灯」는 문자레벨에서는 당연히 상이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혼동의 가능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동음어의 존재가 용납되는 이유는 그 배경에 한자사용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문자언어에서 동음이의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자언어란 음성언어의 존재를 배경으로 비로서 성립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음성언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게 되면 문자언어로서 성립하는 것에도 역시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므로 음성언어에서 동음이의어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음성언어에서는 당연히 동음이의어에 의한 충돌이 언어운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리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찾아보자.

우선 앞에서 언급한 전기관계 어휘인 「電灯」 「電線」 「電信」 「電車」 「発電」 「送電」 「停電」 「感電」에 대해 간단히 전자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동음어가 보인다.

でんとう : 「電灯」 「伝統」 「伝灯」 「田頭」  
 でんせん : 「電線」 「伝染」 「伝線」 「電閃」  
 でんしん : 「電信」 「田紳」  
 でんしゃ : 「電車」 「殿舎」 「伝写」  
 はつでん : 「発電」  
 そうでん : 「送電」 「相伝」 「桑田」  
 ていでん : 「停電」 「遞伝」  
 かん でん : 「感電」 「乾田」 「関電」

위의 예에서는 동음어가 없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3~4개의 동음어가 존재하고 있어서 일견 음성언어에서 동음이의어에 의한 혼란은 피하기 어려운 듯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동음이의어 중에서 동일 문맥에서 사용가능한 것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조사해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또한 여러 동음어 중에서 사람들의 이해정도나 사용빈도를 기준으로 중요도를 살펴보면 모두가 동일한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동음이의어를 가지고 있는 어형이라고 하여도 그 어형에서 우선 연상될 수 있는 어휘는 상당히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입시로 동음이의어에 대한 “대표어휘”라고 호칭하도록 하자.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음성언어에서 사용되는 한어를 조사해 보면 동음어로 인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사전을 보고 예측하는 정도로 많은 것은 아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음성언어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참고로 국립국어연구소의 『日本語教育基本語彙7種比較対照表』의 경우를 조사해 보아도 그 경향은 파악되리라 생각된다. 여기서는 편의상 한어가 다수 나타나고 동음어의 가능성도 높은 「カ」행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カ」행에 나오는 한어 중 2자한어만을 대상으로 하면 모두 474 용례가 나오는데 이중 동음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34쌍의 73 용례로<sup>4)</sup> 약 15%가 동음어를 기재하고 있어서 결국 2자한어중 약 85%에 해당되는 한어가 하나의 어형에 하나의 기본적 어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음성언어에서도 주로 기본적인 어휘사용이 많으리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동음이의어를 다수 포함한 2자한어라 하여도 대부분은 대표어휘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 밖의 동음어의 경우는 문맥의 도움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전문적인 분야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휘 사용에 국한되지 않겠지만 이 경우에는 담화 당사자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관련어휘 사용이 미리 예상되는 경우이므로 역시 우려만큼 동음이의어에 의한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한어에 동음어가 많다는 것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판단하여 언어운용에서 곤란을 초래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3. 문레벨에서 한자의 기능

#### (1) 문절표시기능

언어가 음성을 사용하여 의사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자 역시 의사전달이 주된 목적이라 하겠다. 단 문자의 경우는 언어와 달리 시각적인 면을 사용한다는데 차이점이 있다. 시각적인 면을 통하여 의사전달에 관여한다는 점은 표의문자이든 표음문자이든 마찬가지인데 특히 표음적인 문자의 경우는 문자가 단순하게 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음의 조합을 통하여 특정 형태소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의사전달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문자는 모두 기본적으로는 표어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한자는 대표적인 표어문자라 할 수 있다.

일본어에서 한자 사용은 비단 한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고유어의 경우에도 한자 사용이 매우 빈번하며 심지어는 외래어를 한자를 이용해서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한어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유래된 것은 물론이고, 일본어에서 조합된 것(和製漢語)도 역시 한자로 나타내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드물기는 하지만 「働」 込」 峠」 등 国字의 경우는 한자 자체도 일본에서 형성된 것이다.

4) 별지에 동음이의어 표시

이처럼 다양한 한자 사용중에서 阪倉는 특히 和語의 한자표기에 대해서 다음처럼 높이 평가하고 있다.

"日本人の文化史上のすぐれた創案の一つとして、必ずまず挙げられるものに、仮名の創出の事実がある。しかし、より高く評価すべきものは、むしろまず、この「訓」を与えることによって、漢字をその表語文字という性質のままに自国表記のための「文字」にしたという点であろう" 5)

그러나 모든 일본어표기에 항상 한자가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대표적인 것이 平安時代の 和文인데 여기서는 매우 소수의 和語訓이 한자로 표기되고 있을 뿐 대부분이 平仮名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伊達本古今和歌集』 春歌下97~100을 보면 별지처럼 「春、花、事、風、昔、又、人、物」가 한자로 표기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가나로 표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파악에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우선적으로 이것이 5,7,5,7의 운문으로 되어 있어서 문의 단락을 나누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운문의 경우에도 小松<sup>6)</sup>에 의하면 墨継ぎ나 連綿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띄어쓰기 효과를 나타내려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역시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간에 문의 단락을 나타내는 것이 의미파악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물며 운수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산문의 경우에는 단락표시의 필요성이 한층 더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본어에서는 단락표시를 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띄어쓰기를 함으로써 문의 단락을 구별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띄어쓰는 단위를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단어를 단위로 할 것인가 아니면 문절을 단위로 할 것인가 혹은 다른 단위로 할 것인가의 문제점이 있다.<sup>7)</sup> 또한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일부 표기를 片仮名로 나타내는 방법, 혹은 이전에 사용했던 방식으로 문절의 앞부분과 중간부분을 나타내는데 다른 자체의 仮名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것들이 부분적인 효과 밖에 기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일본어에서 文中의 斷續表示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는 한자표기를 비롯하여 탁음, 축음, 撥音 등을 들 수 있다. 축음과 撥音은 語頭に 나타날 수 없으므로 항상 非語頭임을 나타내며 특히 축음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語末에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전후에서 모두 단락이 올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탁음의 경우는 고유어의 경우 원칙적으로 語頭に 나타나지 않으므로 역시 그 부분에서 문의 단락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출현이 상대적으로 한정적이므로 보편적인 문의 단락표시 수단으로는 불충분하다. 한편 한자표기에 대해서는 전술한 것처럼 한자는 한어 뿐 아니라 고유어의 표기수단으로도 흔히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런 점에서 다른 방식과 비교해 문의 단락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보편적이고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일본어문을 살펴보면 모든 단락의 앞부분에 항상 한자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延慶本 『平家物語』 『論語抄』 『四海入海』 『学問のすずめ』 『日本国憲法』 『朝日新聞』 社説을 일부분씩 발췌하여 문절의 구성요소의 표기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sup>8)</sup>, 한자로 시작하는 「한자+한자」 「한자+

5) 阪倉篤義 「漢字と仮名の機能」 『漢字講座4』 明治書院

6) 小松英雄 『日本語の世界』 6音韻 中央公論社

7) 犬飼隆 『文字・表記探求法』 第9章 朝倉書店

8) 中田祝夫 『日本語の世界4 日本の漢字』 13~29P 中央公論社 1982

가나」인 것이 61~88%이고, 仮名로 시작하는 것이 12~37% 나타나고 있다. 延慶本『平家物語』에서 『朝日新聞』社説에 이르기까지 약 600년 사이에 문절의 앞부분을 한자로 표기하는 비율이 약 75% 전후로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효과적인 문의 단락표시란 기계적으로 모든 문절의 앞부분을 한자로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문절 앞부분에 상당 비율 한자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문의 단락을 구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한자와 仮名표기의 구별

仮名와 한자를 병용하는 일본어표기의 문제점으로 仮名와 한자의 상호의존관계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즉 ましこ<sup>9)</sup>의 지적이 그것인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現代日本語の漢字表記が、かながきを必然的にともなう存在であるために、かながき部分との相互依存の関係が、これまた一貫性/安定性をかいているという問題がある。漢字表記にすべきか、かながきにすべきか、おくりがなはどこからおくるべきか、決定的な根拠などない。たとえば「とりあつかい/取り扱い/取扱い/取扱/取りあつかい/とり扱い/トリアツカイ」「おわり/終わり/終り/終/オワリ」など "

위의 지적대로 하나의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기가 존재하는 것은 언어운용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나의 말에 대해서는 하나의 표기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당연히 혼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말을 나타내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표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이유로 여러 가지 표기가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어표기에서 한자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 즉 명사 동사 형용사 등 자립어에서 사용되고, 仮名는 문의 구성요소간의 관계구성에 관여하는 조사 혹은 활용어의 문법적 성질에 관여하는 어미 부분에 사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한자와 仮名는 출현하는데 제약이 있는데 이러한 제약이야말로 일본어를 시각적으로 간편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여주는 효율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여기서 특히 활용어의 오쿠리가나의 부분적인 다양한 모습이라든지 혹은 명사표기에서 가나와 한자가 모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나와 한자의 병용을 폐지하자고 하는 주장은 그야말로 소탐대실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문자언어의 운용에 있어서 시각적 효율성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이때 부분적인 표기의 다양성은- 물론 표기가 고정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지만 -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된다.

또한 활용어에 한자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유리한 점은 상술한 자립어 부속어의 구별만은 아니다. 활용어는 그 용법에 따라 당연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よま・ない、よみ・ます、よん・で、よも・う」처럼 부정형 연용형 의지형 등이 모두 상이한 형태를 보이게 되어 일견 이들이 모두 같은 동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문제로 될 수 있지만 이들은 「読まない、読みます、読んで、読もう」처럼 語頭に 한자 「読」를 공유함으로써 같은 동사라는 점이 보증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いく」와 「ゆく」, 「いう」와 「ゆう」처럼 상이한 어형을 가진 쌍을 같은 동사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行く」「言う」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며, 심지어 일본의 국호에 까지 「にほん」「にっぽん」의 두가지 어형을 사용하며 이들을 문제상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도 이들의 배경에 「日本」이라는 한자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상이한 어형,

9) ましこひでのり 「ことばの差別と漢字」 『朝倉漢字講座5 漢字の未来』朝倉書店

상이한 가나표기 단어의 同定(identification)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처럼 한자표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말의 여러 가지 표기에 대한 대표표기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여러 이표기의 同定을 보증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 마치며

일본어 표기에 있어서 한자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서는 대표적으로 몇가지를 들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한자의 비효율성이다. 즉 한자는 많은 기억부담을 필요로 하는 것과 비교해 효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동음이의어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음을 고려하지 않은 조어과정으로 인해 현대 일본어에는 많은 동음이의어가 있고 이로 인해서 언어운용에 많은 지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것이 한자 가타가나 히라가나 등 다른 언어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표기수단이 일본어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표기의 복잡성이라 하겠다.

현행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일견 한자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려고 한 것이 대부분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오랜 기간동안 한자사용이 계속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한자 사용이 위축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일본어에서 한자사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자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위에 언급한 문제점과 비교해 더 큰 장점이 한자에 있기 때문에 한자가 여전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입장에서 즉 일본어에서 한자의 효용이란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소론에서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일본어에서 한자의 역할을 크게 단어레벨의 기능과 문레벨의 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단어레벨에서는 조어기능과 표의기능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조어기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현대 한어의 조어력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조어의 방식이 메이지시대와 다르게 변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또 표의기능에 대해서는 동음이의어가 단지 음을 고려하지 않은 표현주체의 조어과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본어 음운체계 때문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흔히 말해지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언어운용에 있어서 문자언어에서는 물론이고 음성언어에 있어서도 동음이의어에 의한 혼란이 생각보다 크지 않음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레벨에서도 역시 한자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斷續의 지표로서 문의 단락을 구별하는 역할과 더불어 단어의 同定 및 대표표기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별지

\* 『日本語教育基本語彙 7種比較対照表』에서 카행의 2자한어 동음이의어

전체 한어수 : 474개

동음이의어 한어 : 종류 -

1) 동음이의어 2단어 - 30쌍 60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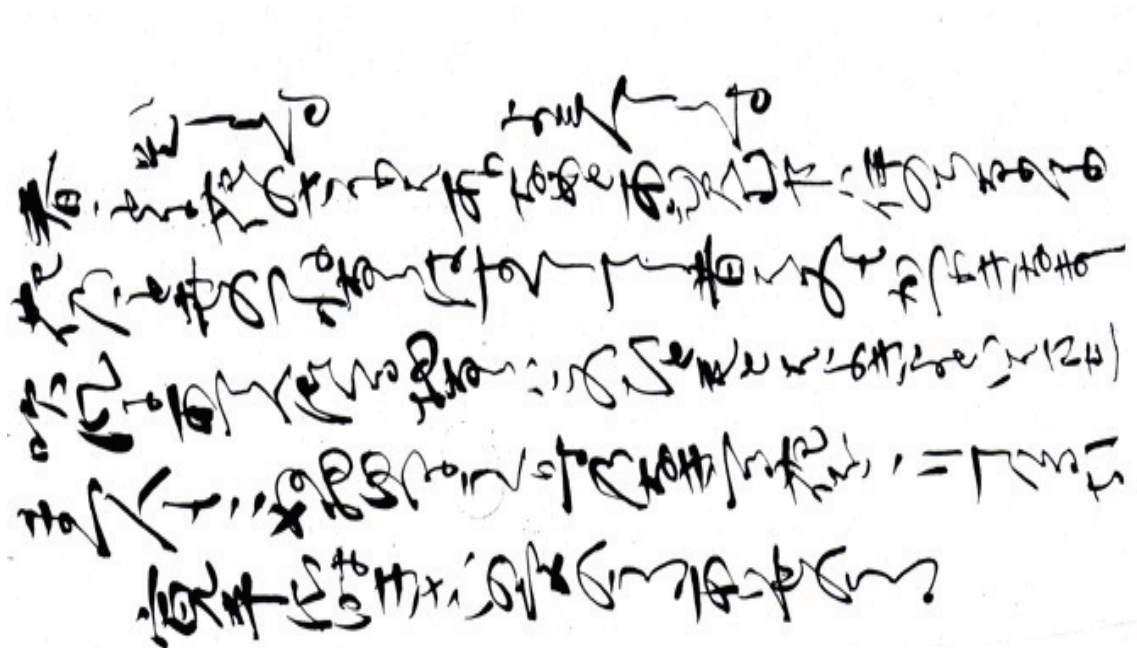
(科学、化学) (樂器、学期) (過程、家庭) (加熱、過熱) (感覺、間隔) (感情、勘定),  
(關心、感心) (感想、乾燥) (管理、官吏) (機械、機會) (期限、機嫌) (氣候、氣孔),  
(汽車、記者) (期待、氣體) (九州、吸取) (強化、教科) (競争、競走) (欠陥、血管),  
(現象、減少) (公園、講演) (公害、郊外) (高校、孝行) (工作、耕作) (工場、向上),  
(構成、公正) (交替、抗体) (工程、肯定) (故障、胡椒) (個体、固体) (国家、国歌),

2) 동음이의어 3단어 - 3쌍 9단어

(境界、協會、教会) (決勝、結晶、血漿) (高度、硬度、光度)

3) 동음이의어 4단어 - 1쌍 4단어

(器官、期間、氣管、機關)



## 이 동 육(한양여대)

## 일본어에서 한자의 기능

본 연구는 일본어에서 한자의 기능을 크게 단어 레벨과 문 레벨로 양분하여 단어 레벨에서는 조어 기능과 표의기능을, 문 레벨에서는 문절표기 기능과 단어의 同定 및 대표표기로서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한어의 조어력 감소 및 동음이의어 발생요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한자의 기능을 단어레벨에 그치지 않고 문 레벨까지 확대하여 파악하려 한 점은 본 연구를 돋보이게 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동일한 한자문화권인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한자 기능을 생각하는데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가 좀 더 깊이 있게 진전되기를 기대하면서 토론자의 이해부족 공부부족에 의한 측면이 크겠지만 본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①2-(1)-(1) 말미에서 和製漢語에 있어서 다수의 동음이의어가 발생한 요인으로 ‘일본어의 단순한 음절구조 및 음운체계’와 ‘압축적인 표현을 추구하여 대부분 2자한어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음절구조나 음운체계의 차이에 의해 정도의 차는 있을 수 있겠으나 한국어나 중국어에도 한어의 동음이의어가 많은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상대적 차이에 대한 요인으로서의 성립할 수 있겠지만 동음이의어 발생의 근원적 요인으로는 생각하기 힘들 것 같다. 동음이의어 발생의 근원적 요인은 역시 표의문자인 한자에 의한 조어이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표의문자 특성상 한자의 수는 상당히 방대하다. 흔히 몇 만 정도로 이야기 하는데 18만의 한자를 수록하고 있는 사전도 있다. 그리고 한자의 수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물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모두 자국의 음절구조 및 음운체계 내에서 낼 수 있는 발음은 한자의 수에 비해 극히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어에서 「とう」에 「当 東 島·····」등 100여개의 한자가 대응하듯이, 한국어에서 ‘동’에 ‘洞 東 動·····’등 90여개의 한자가 대응하듯이 다수의 한자가 동일한 소리로 발음되게 된다. 한자에 의한 조어인 한어에 있어서 동음이의어가 등장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②2-(1)-(2) 말미에서 “전체적으로 한어를 사용한 조어과정이 위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필요하면 언제라도 복수의 2자한어를 결합하여 혹은 접사를 결합하여 복합적구성 한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므로 한어의 조어기능이 위축되었다고 단언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기술하고 있다.

필자의 주장대로 한자의 뛰어난 조어력은 메이지시대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전혀 변함이 없다. 한자의 표의성을 살려 지금 당장 서양의 신문물에 대응하는 신조 한어를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조 한어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생성된 신조 한어가 언어사용주체에 의해 얼마나 사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신개념 A에 대한 신조어가 한어B와 외래어 A'가 만들어 졌다고 가정을 할 때, 그리고 대부분의 언어사용주체가 A'를 선택할 때, 그리고 다른 많은 경우에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때, 이러한 흐름은 신조 한어의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신조 한어의 조어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조 한어 생산의욕에 관련된 문제다. 신조 한어 생산의욕의 저하는 결국 한어 조어기능의 감소 및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野村의 조사를 토대로 한다면 외래어의 차용에 의한 한어 조어기능의 감소 및 위축 현상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 궁금하다.

③결론 부를 통해 볼 때 본 연구는 ‘한자의 효용’ 이라는 입장에서 일본에서 한자 기능의 유효성을 입증하려 한 것으로 한자사용에 대한 필자의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다. 논의 전개 과정에서 한자사용에 대한 부정적 견해들을 불식시키며 한자기능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나와 한자의 병용을 폐지하자고 하는 주장은 그야말로 소탐대실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와 같이 한자사용에 대한 필자의 가치판단이 그대로 드러나는 기술도 눈에 띈다.

한자사용에 대한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옹호론자와 폐지론자 사이에 오랫동안 논쟁이 지속되어 왔던 민감하고도 어려운 문제이다. 본 연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한자사용에 대한 필자의 입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④본 연구는 한국 내에서 한자사용 및 한자교육과 관련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1894년 고종이 한글을 국가의 공식문자로 선포한 후 비로소 공문서에 한글을 쓰기 시작했으며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 [제정 1948.10.9 법률 제6호] 제정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용문서는 한글로만 쓰게 되었다(필요한 경우 한자 병용). 1988년 한글전용과 가로쓰기를 표방하며 한겨레신문이 창간된 것을 계기로 모든 신문이 가로쓰기와 한글 전용을 채택했고 한글 전용이 보다 일반화되어 지금에 와서는 한글 전용이 당연시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일상생활을 통해 한자를 접할 기회가 극히 드물게 되어 사실상 한자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약 20년이 흘렀다. 그러나 한자표기가 사라진 이후로도 표면적으로는 언어생활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듯하다. 토론자 자신도 인터넷 매체의 한글문서를 통한 정보습득에 전혀 어려움을 못 느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도 짐작이 간다. 우리 주변에서 한자가 사라진 후 우리가 느끼지 못 하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을지 필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

## しんにゅうの点から見える問題

- 東ヶ崎 祐一 (慶熙大学校外国語大学)

지정토론 - 신석기 (건양대 교수)

## しんにゅうの点から見える問題

## —新常用漢字の制定に関連して—

東ヶ崎 祐一（慶熙大学校外国語大学）

## 1. はじめに

日本の文字体系は「ひらがな」「カタカナ」「漢字」の3本立てになっていて、また漢字で表された言葉の音声的実現—いわゆる「読み」にも数種類があり、非常に複雑な表記体系をなしている。

このこともあってか、漢字に対する関心は国民の中で非常に高い。漢字に関する知識（それは主に難しい漢字や熟語が読めるか・書けるかである）は教養のバロメータの1つとして扱われ、漢字の知識に関する本は書店のみならずコンビニにまでも大量に置かれている。また、日本漢字能力検定（漢検）の受験者数は年々うなぎのぼりで、昨年（2008）度は280万人を越える受験者があった。ただし今年2月に漢検主催団体の財団法人日本漢字能力検定協会が、公益法人でありながら多額の利益を上げ、かつその用途の私的流用をしていたことが発覚、理事長と副理事長（当時）が逮捕される事態となり、その影響で今年の受験者数は激減しているようである。

一方で、漢字に対する知識を欠く場合、場合によっては必要以上に知性を問われる。日本の麻生太郎前総理大臣が、首相在任中に「未曾有」を「ミゾウユウ」、「頻繁」を「ハンザツ」、「詳細」を「ヨウサイ」などと誤読してしまい、野党やマスコミ等に叩かれ、ひいては自身の支持率低下の一因としてしまった。

このように社会全体が「漢字」に関心を向けている中、しばしば話題となり、また日本国民に漢字への関心を向けさせる要因の1つとなっているものとして、「常用漢字の見直し・新常用漢字の制定」が進められていることが挙げられる。この問題について審議を重ねている文化庁の文化審議会国語分科会・漢字小委員会の発表はマスコミの報道においても比較的大きな 이슈として取り上げられる。

マスコミ報道で話題になったものとしては、追加される文字の種類や数の他に、「『俺』という字を新常用漢字に含めるか」「『淫』『呪』といった学校現場で教えるににくい字を入れるかどうか」「東京都三鷹市など『鷹』を新常用漢字に入れるよう意見書」などのような、話題性の高いものが多い。

そのような新常用漢字制定に関する 이슈の中で、さまざまな問題を含んでいるとして話題になったのが、新規追加候補となる「遜」「遡」「謎」3字の「しんにゅう」の形が現行常用漢字表通りの1点しんにゅう（しんにゅう）になるか、それとも表外漢字字体表の2点しんにゅう（しんにゅう）とするのか、である。この問題は、単に漢字の字形をどうするべきかという問題にとどまらず、漢字政策の連続性、漢字教育、文字コードといった、多方面にわたる問題をはらんでいる。

本発表では「しんにゅう」の字形について、漢字小委員会でどのような議論がなされてきたか、しんにゅうの形の歴史的な変遷、印刷字体と筆記字体の関係、といったことを主軸としていささか話してみたい。特に目新しい話にはならないが、日本漢字の字体の問題は、発表者がここしばらく、外国人に対する漢字指導の問題と絡めて考えてきたことであり、その問題意識をここで披露することにより、日本の漢字の問題点について皆様の理解や思考の助けになれば幸いである。

## 2. 常用漢字の変遷

常用漢字の歴史は、戦後間もない時期に制定された「当用漢字表」に始まるという見解が広まっているようで、漢字についての解説書などを見ても、おおむね出発点は「当用漢字表」となっているようである(阿辻他2002など)。いわゆる「新字・旧字」の問題としてならば、その見解は正しいが、「常用漢字」という名称、及び漢字の使用範囲の制定という点で考えれば、その歴史はややさかのぼる<sup>1)</sup>。

「常用漢字」と呼ばれるものの最古のものは、1923年(大正12年)に制定される。その前史から言及すれば、明治維新以降の「漢字廃止論・制限論」「言文一致運動」といった、さまざまな日本語についての動きを受け、1900年(明治33年)4月、漢字を含む国語政策に携わる部署として、前島密ほか七人が国語調査委員に委嘱される。ちょうどこの年は第3次小学校令および同施行規則が施行され、仮名字体の統一(いわゆる変体仮名の排除、現行の仮名字体はこのときに始まる)などが打ち出され、国語政策の上では画期とも言うべき年であった。さらにこれは国語調査委員会が1902年(明治35年)発足、1913年(大正2年)に廃止されるまで「送仮名法」「漢字要覧」「仮名遣及仮名字体沿革資料」など、数多くの成果を発表した。

1921年(大正10年)、新たに臨時国語調査会が発足、翌年(1922年、大正11年)1962字を「常用漢字」として制定、更に翌年(1923年、大正12年)5月9日に発表した。これが日本で初めて公的に打ち出された「漢字の使用基準」である。特筆すべきは、この中の154字について、ほぼ現行の新字体と同じ字形を「略字表」として挙げられていることである。この字形は当時の出版物においても使われたという。

「常用漢字」制定から10年を経た1931年(昭和6年)、「常用漢字表及仮名遣改定案に関する修正」で147字が削除、45字が追加され、1858字となった。臨時国語調査会は1934年(昭和9年)12月に解散、国語審議会へと引き継がれる。

更に戦時体制下の1942年(昭和17年)、国語審議会が「標準漢字表」2528字を作成、うち1134字を常用漢字、1320字を準常用漢字、残り74字を特別漢字とした。これは文部省により3種類の区分が撤廃され、また字数も2669に増やされる。しかし戦争の影響で、「標準漢字表」が実際に行われることはなかった。

戦後、国語政策はGHQの掣肘を強く受けることとなる。

GHQの要請によりアメリカから派遣された教育使節団は、日本語表記のローマ字化を勧告した。また日本国内でも1945年11月に読売新聞に漢字廃止論を社説として掲載するなど、「国語改革」の気運が高まっていた。この流れを受け、国語審議会は1946年(昭和21年)11月5日に「当用漢字表」を公表、同月16日に内閣告示によって実行された。当初は「標準漢字表」内の常用漢字を元に選定した「常用漢字表」1295字であったが、反対論が多く、これを修正した1850字が「当用漢字」として選定された。

「当用漢字」とは、GHQの日本語に対する政策の究極目標である「漢字・かな廃止、日本語のローマ字表記化」の達成の前段階として、「当面、用いることができる漢字」という意味であった。しかし1951年(昭和26年)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の調印、及び翌年4月の発効により日本が再独立を果たして以降、漢字廃止論は退潮してゆく。まず1966年(昭和41年)に音訓読みが大幅に追加された。そして1981年(昭和56年)、当用漢字が廃止され、新たに95字が追加、1字が字体変更(燈→灯)された。

現在行われている常用漢字表の修正作業は、使用できる漢字の枠を増やそうという1966年以降の流れに沿ったものである。この流れは常用漢字表以外にも、たとえば人名用漢字の拡張にも反映されている。1951年(昭和26年)5月に人名用漢字92字が指定されて以来、国民の要望により年々拡張され、現在では985字(許容字体205字を含む)が、常用漢字以外に人名として用いてよい漢字とされている。また、新聞業界では「新聞漢字表」を制定、常用漢字表内の11字を使わず、45字を使える文字として追加している。また日本語教育においては、日本語能力試験1級水準の漢字として、常用漢字表から19字を除外、110字を追加した計2100字を目安としている。更に最近では、コンピュータの普及により、JIS規格によって定められた第1水準2965字(常用漢字、人名用漢字、地名、その他よく用いられる漢字)及び第2水準3390字(第1水準に準じて用いられる漢字)の、計6355字が事実上の漢字の制限枠として作用している。現在

1) 以下の部分については、笹原(2006)、小駒(2008)を参考にした。

ではJIS規格では第4水準までの10050字、またユニコードに含まれる中国や韓国で用いられる字を含めれば20902字の漢字がコンピュータで扱えることになっている。

### 3. しんにゅうの問題：なぜ2種類の形が存在するのか？

本発表で問題として取り上げたいのは、部首の1つである「しんにゅう」についてである。

しんにゅうという部首、というより文字のパーツは、非常に不思議な問題を抱えている。というのは、このパーツは、『康熙字典』に示される形と、伝統的に書かれてきた楷書の間で、著しい乖離があるからである。

日本の旧字体や韓国で用いられる漢字を漢和辞典で見ると、しんにゅうの左上の点が2つある。これに対し、日本の「常用漢字表」にみられるしんにゅうは、点が1つしかない。これは前述の「当用漢字」を制定した際に、新字体として点を1つ減らしたからである。

ただし、問題は単純ではない。なぜならば、同じ漢字でも手書きの楷書体では、伝統的に「1点しんにゅう」が普通だったのである。書道のための字書『五體字類』『書道大字典』などを見れば、しんにゅうを持つ字の楷書体の大部分が1点しんにゅうであり、2点しんにゅうはわずかしか現れないことがわかる。

1949年（昭和24年）4月28日の内閣告示第一号「当用漢字字体表」の「まえがき」に「印刷字体と筆写字体とをできるだけ一致させることをたてまえとした」とあるように、当用漢字では『康熙字典』に範を仰ぐ印刷字体（明朝体）と、実際の手書きで用いられる筆記字体（楷書体）で用いられる筆記字体との字形の差異を解消するため、一部の漢字の筆画を手書きに合わせて変更している。「平」「半」の2点を「八」から「ソ」の形にしたり、「青」の下部を「円」から「月」に近い形にした、などにそれは端的に現れている。これを見ると、しんにゅうの点の減少は、簡略化というよりも、印刷字体の筆記字体への統合と、むしろ見るべきである。

では、なぜこのような印刷字体と筆記字体の乖離が生まれたのか？ 漢字小委員会委員の1人でもある阿辻哲次氏は、自著（阿辻2009）の中で説明をしている。以下、その論旨をいかつまむと、

- ① しんにゅう<sup>2)</sup>は古くは「𠂔」と書かれていた（篆書体）。
- ② 隸書になったときに簡略化され、2点しんにゅうあるいは1点しんにゅうのような形で書かれた。中にはLのように簡略化されたものもある。
- ③ 唐代、科挙のため楷書の規範を定める必要が起こってきた。そのために作られた『五経文字』や『干祿字書』では、1点しんにゅうで書かれている。ただしその時代でも2点しんにゅうが使われることもあった。
- ④ しんにゅうはその後も、印刷される場合でも手書きで書かれる場合でも、2点が一般的だった。そのまま『康熙字典』でも2点しんにゅうが使われたので、最も規範的な形と考えられるようになった。

上記の説明には事実誤認があり、しんにゅうは筆記字体では1点、印刷字体では2点が標準であったというのが正しい。事実、阿辻氏も第30回漢字小委員会（2009年1月16日）において、「ほとんどの手書きで書かれてきた文字は、圧倒的に<1点しんにゅう>が多いです。中国で、木版印刷されるときには<しんにゅう>に点が二つ入っている形が規範です。（中略）印刷字体では<2点しんにゅう>、手書きでは<1点しんにゅう>がこれまでの圧倒的な流れであるとお考えいただければいいだろうと思います」と発言している。

以上の「印刷字体は2点、筆記字体は1点」ということを踏まえたとしても、ではなぜこのような乖離が起こったのか、についての説明には、上記の説明はなっていない。巷間よく言われる説は「明朝体は顔真卿（709 - 785）の楷書をまねた」である。確かに、顔真卿の楷書の縦線は太く横線は細く、横画の収筆や右払いの始筆が強調された形で、明朝体とよく似ている。竹村（1986）でも、明朝体が成立するにあたり「欧陽詢や顔真卿の書風を微細にわたって取り入れられた可能性は十分にあると考えられる」（p. 78）と述べられている。そして実際、顔真卿の筆跡の中には、「多宝塔碑」のように2点しんにゅうが用いられているものも存在する。

2) 「しんにゅう」は「しんにゅう」に同じ。阿辻氏は書中でこの語を用いる。

以上のことだけを見れば、「顔真卿の2点しんにゅう」→「明朝体の2点しんにゅう」という筋道は成り立ちそうに見える。しかし、この推論にはいささか疑問もある。なぜならば、そもそも顔真卿の書いた楷書でも主流は1点しんにゅうなのである。「告身帖」「顔氏家廟碑」「顔君神道碑」「麻姑仙壇記」など、多くの彼の作品では1点しんにゅうが現れる。しばしば例として挙げられる「多宝塔碑」の2点しんにゅうも、あるいは文字学に詳しい家系に生まれ、復古的な書体を時に用いた顔真卿が、たまたま隷書にみられる2点しんにゅうを使っただけなのかもしれない。

もう1つ、顔真卿が2点しんにゅうを書いた時期と明朝体の中の時代的ブランクが大きすぎる。2点しんにゅうは彼の他にも、たとえば智永（生没年未詳、6～7世紀初）の「真草千字文」にもみられるが、顔真卿以降の書家で2点しんにゅうを楷書で書く書家は、管見ではほとんど見当たらない<sup>3)</sup>。一方、印刷物で2点しんにゅうを用いている古い例は、孫引きで恐縮であるが花登（1997）の図版で、『古今韻会舉要』宮内庁書陵部蔵元版本（刊行年未詳）である。これを見ると「通」が2点しんにゅうになっている。ただしこれとて、『挙要』の成った1297年（元大徳元年）より古いことはあり得ず、顔真卿との間には400年以上の隔りがあるのである。

結局、印刷字体でなぜ2点しんにゅうが一般的になるかは、顔真卿の楷書にその理由を求めるのはやや説得力に欠ける。現在のところは、元代に印刷書体（この当時はまだ楷書体）に2点しんにゅうが現れはじめ、明代に成立した明朝体では2点しんにゅうが一般的になった、と述べるにとどめるべきであろう。そしてなぜ印刷物で2点しんにゅうが一般的になったのかも、現在のところははっきりとした理由がわからないと言うほかはない。

#### 4. 文化審議会国語分科会漢字小委員会での議論

1. では現在までの漢字使用の枠組を主に見てきた。これに対して、現在制定作業が進められている「新常用漢字」は、これからの漢字使用の目安となるものである。

新常用漢字制定のきっかけは、2005年（平成17年）2月に文化審議会国語分科会の出した報告「国語分科会で今後取り組むべき課題について」<sup>4)</sup>である。この中の「第2 情報化時代に対応する漢字政策の在り方について」で、「分科会では、常用漢字表の在り方そのものを検討する時期に来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た」（p.5）との見解が示された。これを受けて、同年3月、中山成彬文部科学大臣（当時）が常用漢字表の見直しの検討などを文化審議会に諮問、そして同年9月から国語分科会内の漢字小委員会が常用漢字見直しの審議を始めたのである。

議事録に目を通してみると、議論の内容が多岐にわたっているのが見て取れる。単に漢字の増減だけではなく、既存の字の音・訓読みの見直し（現在32種類の音訓が追加候補、1種類が削除候補となっている）、都道府県名・国名の漢字の追加について、人名用漢字<sup>5)</sup>や新聞表記との兼ね合い、更には「読み・書きが必要な漢字」と「読めるだけでいい漢字」に分け、後者を「準常用漢字」にすべきではないか（結局は常用漢字に一本化）、などの案件が審議されている。

しんにゅうの問題も含めた、漢字の字体についての話が本格的に議論の俎上に乗るのは、第27回漢字小委員会からである。そもそも、本来常用漢字表（及びその前身の当用漢字表）に載っていない漢字（表外字）については、『康熙字典』の形が標準とされてきたが、朝日新聞では早くから独自の基準に従って省略された表外字（いわゆる「朝日文字」）を使ってきた。これは「拡張新字体」とも呼ばれ、「鷗（鷗）」「澆（瀆）」「澆（潑）」といった文字が有名である。ところがこれらの文字は「正字（つまり康熙字典体）ではない」として評判が悪く、また正字体の方がJISコードに入っておらず使えないことから、字体の差し替えの要望が非常に多かった。現在ではこれらの正字もJISコード（第3水準）に入っており、多くのコンピュータで普通に表示・入力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更にこのような問題を受け、国語審議会（当時）は2000年12月に「表外漢字字体表」を発表する。これにおいてはほとんどの表外字が康熙字典体が標準（印刷標準字体）であるとされたが、略字体が通用している22字について

3) 2点しんにゅうが現れる例として、875年（貞観12年）鑄造の神護寺鐘銘（藤原敏行書）がある。ただ、これは日本のものである。

4) [http://www.bunka.go.jp/kokugo\\_nihongo/bunkasingi/pdf/20050202.pdf](http://www.bunka.go.jp/kokugo_nihongo/bunkasingi/pdf/20050202.pdf)

5) 人名用漢字は法務省の管轄で、文部科学省の下位組織である文化庁文化審議会は直接手を加えることができない。

は「簡易慣用字体」としてそれらを示し、および3部首（しめすへん・しょくへん・しんにゅう）については、康熙字典体（示・食・讠）のほかに常用漢字に採用されている形（ネ・食・讠）も許容されるとした（3部首許容）。

今回の新常用漢字案においては、30字前後が、常用漢字表の字体と齟齬を来たず、すなわち「旧字体」の形の部分を持つ字である。たとえば「便箋」の「箋」は「浅」「残」「銭」などと本来同一である部分（𦵑）を持つが、これについては「常用漢字にあわせるべきだ」という意見に対して「常用漢字に合わせた字体が日常の文字生活の中で認知されるのか（つまり、ほとんど存在しない字ではないか）」という意見が第27回漢字小委員会では出されている。そして「しんにゅう」の問題を含め、文化庁の漢字ワーキンググループが検討した結果、追加する字の字体は「表外漢字字体表」の「印刷標準字体」にする、ただし簡易慣用字体を持つ「曾」「麵」「瘦」については、その字体を採用する、との案を出した。

#### 4. 1 漢字小委員会におけるしんにゅうについての議論

第27回漢字小委員会（2008年11月11日）では、追加字の字体を現行の常用漢字表の通用字体に揃えるかどうかについて議論された。この会議では最初に配布資料の1つとして、追加字種191字の字体表が委員に配布されている。それを踏まえ、字体についての議論が始まる<sup>6)</sup>。ここで新常用漢字の字体を常用漢字表に合わせるべきかどうかの議論の1つとして、「しんにゅう」についての議論が出る。

しんにゅうについての議論は、前田富祺主査（大阪大学教授、国語学・文字史）・林史典副主査（聖徳大学教授、日本語史）、そして阿辻哲次委員（京都大学教授、中国文字文化史）らの、2点しんにゅうで良い派と、甲斐睦朗委員（京都橘大学教授、元国立国語研究所所長、国語学・国語教育）・武元善広委員（東京書籍株式会社取締役）・金武伸弥委員（社団法人日本新聞協会用語専門委員）らの、追加字も1点しんにゅうで統一すべき派との間で、見解の相違が続き、なかなか溝が埋まらない状況になっている。

議論の形としては、甲斐委員・金武委員が自分たちの主張を強く押し出し、それに対して前田主査・林副主査が押収する形で進むことがほとんどである。第28回（2008年11月25日）では、甲斐委員と前田主査の間でほとんど喧嘩のような雰囲気になったのが、議事録の中からも見て取れる。

1点しんにゅうで統一すべき派の主な意見は、以下の通り。なお以下の部分での「意見」については、特に断らない限り議事録そのままではなく、発表者が適宜要約をしている。

- ・ 10年、15年後で子供が先生になぜこの漢字は2点しんにゅうなのかと聞いたとき、先生は20年も前の「表外漢字字体表」の中で決まったことだと説明しなければいけないけど無理だろう、だから（教育現場としては）1点しんにゅうにしてもらいたい（第27回、甲斐委員）
- ・ 2点しんにゅうの文字が出てくると教科書ではそれで示さねばならないが、どちらでも良いという立場が学校教育の場で取れるのか疑問だ、（他の小さい差異のある字も）統一できるものは統一した方が良い（第27回、武元委員）
- ・ 新聞社は「表外漢字字体表」の「3部首許容」を採っている社も随分あるが、「遜」などの2点しんにゅうの字体が入ってきたときに、そういう社（つまり、1点しんにゅうばかり採用している新聞社）が、その字だけ2点にするのはおかしい。表外漢字は1点にしておいて、新たに表内に入った字を2点にするのは非常に難しい、常用漢字においてきた新聞社の書体の基準が新常用漢字と抵触する可能性がある。（第28回、金武委員）
- ・ 正字体も略字体も情報機器で使えた方が便利だが、（2004年の）JIS改正で

6) 以下の議論は、文化庁文化審議会国語分科会・漢字小委員会のサイトで公開されている議事録による。議事録を読む際には、漢字小委員会の会議を毎回傍聴している小形克弘氏のblog、「もじのなまえ (<http://d.hatena.ne.jp/ogwata/>)」を参考にさせていただいた。

「遜」などは1点しんにゅうが使いたくても使えなくなってしまった。(同上)

- ・ 庶民感覚として「なぜ常用漢字表の中に同じ部首なのに違うものがあるんだ」という声はおそらく出るだろう(第29回、武元委員)
- ・ (1点しんにゅうと2点しんにゅうの使われ方に対する調査で、2点しんにゅうの方が圧倒的に使われていたという調査結果に対し)新聞が対象にされていれば、1点しんにゅうの方が一ヶ台というのはあり得なかった(第30回、金武委員)

国語教育に携わる側である甲斐委員からは教育現場での混乱を強く危惧している様子が見える。ただし、毎回あまり同じ話を蒸し返すので、やや議事録を読む側としては食傷気味である。

また金武委員の場合、金武委員は新聞業界の利益及び意見を代弁する立場として、今までの新聞社での漢字の基準を守ろうとかなり強硬な意見を毎回披露している。第29回では前回の配布資料の1つ「「追加字種・字体」についての基本的な考え方(案)」の、追加字種を「印刷標準字体」で掲げるとしたことの理由として上がっている5項目に対して、個人的な意見と前置きしながらすべてに否定的な意見を述べ、林副主査から「これまでの流れを尊重した上で御自分の意見を記録に残したいという、そういう御趣旨での発言だったというふうに理解いたします」と皮肉られている。

これに対し、会議を取りまとめる側の前田主査・林副主査の意見は、防戦する側ということもあり、かなり消極的にも見える。

- ・ 「表外漢字字体表」の考え方が情報機器で定着している。またそれを変えるということはコストがかかり、また10年も15年も解決に時間がかかると、前回の懇談会<sup>7)</sup>で説明された。これに対して手書き文字の場合は、ある字は1点しんにゅう、ある字は2点しんにゅうにならないと、子供が書き取りのときにバツになるのはまずい、手書きのレベルでは字体の問題がいたずらに複雑にならないようにしたほうが良い。(第27回、林副主査)
- ・ 手書きのところで1点しんにゅうを出し、1点と2点の違いは手書き字形と印刷字形の違いで、そのことを重視したい(第28回、阿辻委員)
- ・ 基本は印刷標準字体だが、手書きは1点しんにゅうと2点しんにゅうの区別があると具合が悪いから統一しよう、印刷標準字体は印刷文字としての字体を示すことが基本である。(第28回、林副主査)
- ・ 情報機器の発達とそれによる問題、その解消が今回の常用漢字改訂の目標。その前提を考えなければいけない。(第28回、前田主査)
- ・ 統一できるなら統一したい。だが現実には1点しんにゅうや2点しんにゅうのように混ぜて用いているが、混乱はない。2点だから間違いとか、2点だから違う文字だとかや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極力現実には混乱の生じない形で国民の合意を得るといった考え方に沿って議論している。(第28回、林副主査、金武委員の「1点しんにゅうが使いたくても使えなく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意見への回答)

林・前田両氏は、その立場上、印刷字体と筆記字体の差異を認める一方で、それまでの文字に関わる政策に目を配って発言している様子が見える。実際、文字に関するすべての基準が文部科学省や文化庁で決められているわけではなく、人名用漢字は法務省、JIS規格は経済産業省

7) 「懇談会」は2008年10月27日に行われた。非公開であるので詳細は不明だが、小形克宏氏のブログ記事 (<http://d.hatena.ne.jp/ogwata/20081021/>) によれば、マイクロソフト最高技術責任者、国語教育学者、出版社の漢和辞典担当編集者が講師として来たとのこと。

の管轄であり、これらの基準や規格は現在の縦割り行政のもとでは手を出しにくい。追加字種を「印刷標準字体」で掲げるとしたことの理由の2には「国語施策としての一貫性を大切にす

る」が挙げられているが、これは彼らにとっては、自分たちのあずかり知らぬところで決まった基準であっても（いやそうだからこそ）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常用漢字との一貫性を強調する「1点しんにゅうで統一すべき派」とは立場が明確に違う。

とはいえ、彼らの意見の中には、既にある基準だから守っていこうという、消極的意見と受け取られかねないものもある。それがますます甲斐・金武両委員をいらだたせてもいるようである。

第29回（2008年12月16日）で、甲斐委員は常用漢字表の中における統一性にこだわる立場から、「たとえば教科書は学習者の筆写ということをも前提として作っていくということもあるわけだから（中略）「遡」にしましても<1点しんにゅう>を表に出して<2点しんにゅう>を括弧にする、こういうふうにしていけば（中略）考え方が私は非常に楽になるように思うわけであります」と、新たな提案をしている。これに対し、林副主査はその意見に理解を示しながらも、「今のこの形で混乱は生じないだろうと理解いたしました」とやんわり提案を拒否している。もちろんその理由は明確で、そういうことについて既にかなり時間をかけて漢字ワーキンググループで議論をし、上の答えのような結論に至ったからだと付け加えているが。

甲斐委員は更に食い下がり、さきに自分の出した案（1点を表に、2点を括弧に）と追加案の案（2点を表に）のどちらがよいかをパブリックコメントで聞いてはどうかと提案。しかし前田主査は「どうも個人的な意見を私が申し上げると混乱するかと思いますので…」と回答を避ける。前回の第28回ではしんにゅうの問題で甲斐委員と前田主査が鋭く意見を対立させてしまったという経緯があり、それを考えての受け流しではあろうが、いささか逃げた印象も出てしまう。

阿辻委員の態度は、前田主査らとはやや異なる。中国漢字学の専門家であり、漢字ワーキンググループのメンバーでもある彼は、個人的意見と委員の立場を区別しているようで、そのためか第28回では規格でがんじがらめにされている状況を「何十年か前に決められたもののツケを、我々が飲み食いしたわけでもないのに払わされている」と表現している。また第27回では、印刷字体と筆記字体を区別して、文字表では両者の関係を何らかの形で表すのが望ましい、との意見を出している。これはやや甲斐委員の意見にも似ているが、印刷字体（2点しんにゅうを含む）を筆記字体（1点しんにゅうを含む）に合わせるわけではないところが決定的に違う。

教育現場出身の委員の意見も分かれていて、邑上裕子委員（新宿区落合第四小学校長）は甲斐委員に近い立場だが、納屋信委員（東京都立調布南高等学校長）はワーキンググループの考えに理解を示している。

第31回で委員の入れ替えが若干あり、ここで甲斐委員は（70歳定年のため）退任する。主査・副主査は前田・林両氏の再任。

再度しんにゅうについての議論が紛糾するのは第35回（2009年7月28日）においてである。ここでは、今年3月16日～4月16日に募集された「「新常用漢字表（仮称）」に関する試案」に対する意見のうち、字体に関わる意見の一覧が配布された<sup>8)</sup>が、それを受け、金武委員が、「字体は統一してほしい」という意見が「全面的に賛成」より多かったこと、しんにゅうはそろえてほしい、基本的に易しい方に統一してほしいという意見がかなりあったことから、字体についてはもう少し話し合う必要があるとコメント。次いで寄せられた意見の1つを披露、その中でも1点しんにゅうを是としてある。

次いで内田伸子委員（お茶の水女子大学副学長、発達心理学）も（1点しんにゅうを始めとした）部首の統一に賛成。

更に話は情報機器との対応ということになり、金武委員が携帯電話では「遡」などが1点しんにゅうで出てくることから、今の携帯世代は2点しんにゅうで出てくると違和感を持つのでは、と述べる。これについては阿辻委員が、今の大学生はメールは携帯電話でやり取りするが、レポートはパソコンで書いてくる、しんにゅうの点の数を考えるとき若者の動向はあまり参考にならないと反論。次いで出久根達郎委員（作家）も、その意見に違和感を表明、漢字は先人の知恵で作られているのだから、現代人が2点しんにゅうを1点しんにゅうにしてしまうのは不遜な考えではないかと意見を表明。納屋委員も実態とは関係なく字体を変えるのは、社

8) [http://www.bunka.go.jp/kokugo\\_nihongo/bunkasingi/kanji\\_35/pdf/shiryo2.pdf](http://www.bunka.go.jp/kokugo_nihongo/bunkasingi/kanji_35/pdf/shiryo2.pdf)



会の混乱という点では懸念が強いと述べる。

金武委員はやや劣勢に立たされ、すべてを1点しんにゅうにせよと言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と釈明。更に新聞協会の意見書について説明をするが、その中でしんにゅうの字体に関する意見は、以前に表明したものとほぼ同じで、2点しんにゅうが混じっていることについての説明が難しいとか、1点しんにゅうを表に入れて2点しんにゅうは括弧に入れて印刷標準字体とすべきだ、といったものである。

林副主査がこれまでの意見を踏まえ、1点か2点かに統一するか、それとも両方認めざるを得ないか、そこをはっきりさせないと議論は前に進まないとする。その上で常用漢字表に不統一な点があるからと言って、その原表そのものが現場に出て行くわけではないのだし、教育現場が混乱するとは単純には言えない。教育に関しては独自の配慮をすることでしているのだから、そこを認識した上で議論を進めるべきとする。

高木展郎委員（横浜国立大学教授、国語科教育法）や金武委員は更に学校境域の場における混乱を懸念、更に金武委員が新聞の投書などを引用しつつ、戦後の国語政策が漢字を易しくする方向に行っていたのにそれに逆行するのではないかと述べる。これに対し、阿辻委員が1983年のJIS改定において「鷗」や「澆」のような字が現れたときの混乱を指摘、易しくすることが必ずしもいいわけではないと示唆。

その後、松村委員がいろいろな字形が混在するのは国民の理解が得られる段階にない、と、邑上委員が（しんにゅうの1点・2点の）両方を認めざるを得ないが、国民に示しがつくような表の表し方を探るしかない、と意見を述べる。

第36回漢字小委員会は2009年9月8日に開かれたが、その議事録は原稿執筆時点ではまだ公開されていない。第37回は10月23日に開かれる。

#### 4. 2 漢字小委員会での議論から見てきたこと

以上、漢字小委員会の議事録から、しんにゅうの1点・2点をどのように扱うかの議論について見てきたが、この話が出ると話がループして対立は平行線のままと印象が拭えない。それは先にも述べたように、現在の漢字について、前回の常用漢字の制定の時点では考えられないような変化が起こっている、特に情報通信機器の目覚ましい発展という、予想外の事態を受け、各委員も以前の常用漢字時代の感覚が抜けきらなかつたり、文字コードの存在の重大さに思いが至っていなかつたり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

ただこの議論である程度見えてきたこととして特記すべきは、「印刷字体と筆記字体の区別を明確にする」という点である。そもそも当用漢字・常用漢字を含めた国語改革においては、より文字を簡単にするという大前提の中、印刷字体を筆写字体にできるだけ近づけるという方向で動いてきた。これは漢字圏の中国や台湾でも同じで、中国はすべてのしんにゅうを印刷字体においても1点に統一、台湾では印刷書体に手を加えて、しんにゅうもより手書きに近い、1点でしかも楷書体のように点の下の部分が曲折がある形にした。これに対し今回の新常用漢字では、すでに存在する「表外漢字字体表」との兼ね合いからやむを得ず帰結したものはあるが、印刷字体と筆記字体との違いを認め、2つを近づけなくても良いという方向を打ち出した。

これはある意味、画期的なことである。議論の中でも指摘されているが、教育の現場においては、当用漢字の時代からどちらでもいいとしてきた字体の広がり（はねてもはねなくてもいい、など）を否定するような、厳格すぎる指導がしばしばなされてきた。印刷字体と筆記字体との違いをはっきり打ち出し、筆記字体においては字体にいろいろな幅を持たせるようにするならば、上のような不合理とも言うべき、厳格すぎる漢字指導は減るであろう。

アルファベットやひらがなでもaやg、「そ」のように、かなり違う複数の字体が行われているものがある。そのことを思えば、漢字のみが「とめ」や「はね」など、細かな字画の区別に拘泥するのはおかしい。事実、現在の明朝体でも、「令」や「北」、「入」のように筆記字体との形の乖離が激しいもの、「糸」や「衣」のように転折が強調されすぎて筆記字体と差が出ているものが厳に存在するのである。漢字だけが必要以上に印刷字体と筆記字体の統一を目指したのは、1つにはその複雑さ・数の多さによる覚えにくさがあったのであろうが、現在では情報通信機器の発達により「覚える」部分のかなりを機械の方に押し付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

印刷字体と筆記字体が乖離していると言っても、両者は根本のところにつながっているわけ

だから、共通性がないほどまったく別の方向へ向かうということも考えにくい。印刷字体と筆記字体の乖離は、近代以前においてはむしろ普通だったのであり、今回はそういう流れに戻る1つのターニングポイントとなる可能性もある。3. で見てきたように、しんにゅうについては1点が筆記字体、2点が印刷字体というのが大きな流れだったわけで、今回のしんにゅうに関する議論は、印刷字体と筆記字体の本質的な関わり方を象徴していたものだった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だろう。

## 5. おわりに

以上、新常用漢字制定としんにゅうの字体という2つの問題を絡めて述べてきた。しんにゅうの点の数は、字体という問題からすれば、はっきり言ってしまえば単なる問題の1つであり、実際字体という点に関しては、文字コードの専門家から、しんにゅうの点も含めた漢字デザインに関するもっと大きな問題が提起されている（安岡2009など）。それにもかかわらず、ここまで漢字小委員会でも何度も議論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は、これが字体の問題をいろいろな点で象徴しているからであろう。

最後に発表者の立場を明確にしたい。発表者は、できるものならば常用漢字内の部分パーツは、特に部首に関しては、統一するべきだと考えている。表外漢字字体表や文字コードの兼ね合いもあり、なかなか動かしがたいのは理解できるが、それでも外国で漢字を教える立場の者としては、基準が印刷字体についても明確な方が望ましく思える。この点は漢字小委員会の甲斐委員（前）や金武委員の意見に近い。しかし、強硬に統一するべきだとまでは思っていない。漢字学・文字学の専門家の端くれとして、文字の字体の統一ということは、些細な問題の1つにすぎず、あまり拘泥する必然性を感じないからである。この辺りは阿辻委員の感覚に近いだろうか。

新常用漢字についての答申は当初2009年9月に行われる予定であった。ところが、議論が紛糾したこともあり、答申は1ヶ月遅れて10月に行われることになった。この発表が行われるときには既に答申がなされているであろうが、その内容がどんなものになるか、非常に興味深い。

## 参考文献

- 阿辻哲次他(2002) 『漢字の知識百科』三省堂  
 阿辻哲次(2009) 『漢字の相談室』文春新書  
 小駒勝美(2008) 『漢字は日本語である』新潮新書  
 笹原宏之(2006) 『日本の漢字』岩波新書  
 竹村真一(1986) 『明朝体の歴史』思文閣出版  
 花登正宏(1997) 『古今韻会挙要研究 —中国近世音韻史の一側面—』汲古書院  
 安岡孝一(2009) 「新常用漢字(仮称) 試案の字体における問題点」『東洋学へのコンピュータ利用』第20回研究セミナー、pp. 47 - 92

## 参考にしたWWWサイト

- 文化庁 | 国語施策・日本語教育 | 文化審議会国語分科会  
[http://www.bunka.go.jp/kokugo\\_nihongo/bunkasingi/index.html](http://www.bunka.go.jp/kokugo_nihongo/bunkasingi/index.html)  
 もじのなまえ (小形克宏氏)  
<http://d.hatena.ne.jp/ogwata/>  
 安岡孝一氏のホームページ  
<http://www.kanji.zinbun.kyoto-u.ac.jp/~yasuoka/index-j.html>

## 신 석 기(건양대)

しんにゅうの点から見える問題  
—新常用漢字の制定に関連して—

今現在文化審議会漢字小委員会では、これまでの常用漢字に新しく191字の漢字を加えて、新常用漢字表制定の最中である。だが追加文字の選定や音訓はほぼ確定されたが、字体の確定作業をめぐってこれまで激しい議論がなされている。本研究はこのような流れを、特に部首「しんにゅう」の点の数（1点にするか2点にするか）をめぐっての議論から単純に点の数の問題にとどまらず、もっと広い視野でいろいろな問題（メディア、出版界、パソコン上の文字処理等）と関連づけて論じている。以下の質問項目は別論文の内容に対する質問ではなく、字体確定に関する私見である。これらに対するの発表者のご意見伺いたい。

1. 今回加えられる文字の殆んどは表外漢字字体表と人名用漢字の中にあるが、いくつかの文字は常用漢字表に加えられる際に字体を統一しようするかが問題になっている。統一すると新しく字体を作らなければならぬので負担になる恐れがある。すでにインターネットの世界でも定着されている字体を変えることは大変であると予想される。一方、字体を変えないでそのまま加えると、1点しんにゅうと2点しんにゅうが混在してしまうので、特に教育現場での混乱を避けられない恐れが予想される（これはすでに委員会で主張されつつあったことである）。

これらの議論に対するの私見を述べさせてもらえば、まず、漢字を使っている漢字文化圏では、インターネットの普及にともない漢字の文字コードの国際化が進められてきている。しんにゅうを1点に統一すると日本独自の新しい漢字を作ることになる。日本だけではなく、もっと広く漢字文化圏を視野にいれて考えなければならぬと思う。それでこの混在を認める方向が正しいと思われる。

2. もともと手書きと印刷文字は論文の中でも指摘されているように、しんにゅうの点の数は違っていたのである。つまり、手書きの時は1点で、印刷字体は2点であった。印刷字体は明朝体であったからである。よく考えてみると、手書きの1点のしんにゅうを常用漢字制定の際、明朝体を1点にしてしまったことがそもそのミスであったような気がする。そのミスを字体統一化という名目でやってしまうとまたの間違いを繰り返す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以上

---

## 종합토론

사회 - 황 광 길(단국대 교수)

지정토론 - 고수만, 권경애, 이한섭, 편무진, 이우석  
황규삼, 이동욱, 東ヶ崎 祐一, 신석기